

제10편

문화재와 유물·유적



제1장 문화재의 개념

제2장 오산시의 문화재



제1장 문화재의 개념

1. 문화와 문화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화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문화인 아니니, 문화예술인 아니니 하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사로서의 문화는 인간의 고급한 지적 활동 내지는 그 소산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의식주를 비롯해 기술·학문·예술·종교·도덕·법률·관습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공유되고, 학습되고, 전달된다는 세속성을 통해 나온 일체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말한다. 문화재란 바로 이 문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문화의 산물이라고 해 모두 문화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는 것만을 문화재라 한다. 1962년 제정, 1982년에 전문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바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우수한 문화재는 국가에서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중요한 유적은 사적(史跡)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를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중요무형·중요민속 등으로 지정한 것은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중요성을 알게 하여 보호·관리하는 홍보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화재의 범주를 유·무형의 인위적인 유산에 국한시키지 않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광물 및 명승지 등의 자연환경도 포함시키고 있다.

2. 문화재의 가치

문화재의 가치는 희귀성, 재질의 가치성·시대성 및 학술성 등의 요소들이 복합되어 결정된다. 비단,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모든 물건은 희귀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동일 유형의 문화재가 없거나 수가 적을 때 그 유물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그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줄어든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희귀한 유물의 가치를 인정 보호하고 있다. 문화

재는 형성된 재질의 귀천에 따라 그 가치성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동시대에 만들어진 동일한 형태의 금관과 청동관이 있을 때 금관의 가치가 월등히 크다. 또한 같은 유형의 문화재에 있어서는 그 제작연대가 오랠수록 가치가 커진다. 이는 오래된 유물일수록 남아 있는 수가 적다는 점에 기인한다. 시대성에 의한 가치는 희귀성에 의한 가치와도 연관된다.

문화재의 가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예술성 또는 미려성을 끂지 않을 수 없다. 동시대에 만들어진 같은 유형의 문화재라 하더라도 정교하고 예술성이 높은 것일수록 보다 큰 가치를 지닌다. 희귀성, 재질의 가치성, 시대성, 예술성이 같다고 해서 그 문화재의 가치가 모두 동등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나타나기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학술적인 가치가 달리 부여된다. 즉, 같은 유형의 문화재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작, 사용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같은 사실(史實)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리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재는 항상 충분한 사전 조사 활동을 통해 발굴돼야 하고 그 조사내용은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다.

3. 문화재의 분류

문화재를 분류하는 방법은 유형(有形)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나누고, 지정 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로 나누며, 다시 지정문화재는 지정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유형별 분류

(1)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 및 보물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유형문화재가 있다.

(2)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는 그 기능보유자와 인간문화재를 더불어 지정해 인정하고 있다.

(3) 기념물

폐총·고분·성지·요지·유물 포함총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명승지·천연기념물, 그리고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기념물이 있다.

(4)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구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 민속자료가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1)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가 포함된다.

(2)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지정되지는 않았어도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반동산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있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전적·서적·판본·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이들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이고 생존인의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매장문화재는 토지·해저 등에 포함돼 노출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를 일컫는다.

3) 지정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중요 문화재로서 국보·보물·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중요 무형문화재·중요 민속자료 여덟 가지로 구분된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등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지정되며, 사적은 기념물 중에서 유사 이전의 유적 및 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사회사업·분묘 등의 유적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지정된다. 명승은 기념물 중에서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이 지정되며 사적 및 명승은 경주 불국사와 같이 사적지·경승지로서의 가치가 큰 유적이 지정된다.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광물·동굴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이 지정되는데 이때 동물의 경우는 서식지·번식지·도래지가, 식물의 경우 자생지가 포함된다. 중요 무형문화재는 종묘제례악과 같이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지정된다. 중요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세시 등에 관한 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국민 생활의 시대적·계층적 변화와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물·유적이 지정되고 있다.

(2)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그리고 각 도지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로 구분된다.

(3) 문화재자료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각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중에서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하여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건조물·사적 등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지정한다.

(4) 시·군지정 향토유적

경기도에서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향토유적의 보존·보호를 위해 1985년 11월 2일 시·군향토유적 보호조례 준칙을 시달, 경기도 시·군에서는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의거해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및 향후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 향토문화 및 전통민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향토유적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제2장 오산시의 문화재

오산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적 1점,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1점, 기념물 2점이 있다.

이 밖에도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문화유적과 역사의 현장이 있고, 유물이 소장돼 있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을 대변하고 있다. 오산시의 지정문화재와 유적·유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정문화재와 유적·유물

구 분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 재 지	지정연월일
사 적	禿山城 및 洗馬臺址	140	지곶동 155	1964. 8. 29
유형문화재	關里祠 聖蹟圖	62	궐동 152	1974. 9. 26
기념물	關里祠 錦岩里支石墓群	147 112	궐동 금암동	1994. 4. 21 1988. 12. 2
전통사찰	寶積寺	34	지곶동	1988. 7. 27
유 적 유 물	外三美洞支石墓 竹美嶺 初戰記念碑 文憲書院 李尙載先生忠臣 旌閭門 洪受疇先生墓 崔廷麟先生孝子 旌門 沈周澤先生 家言善行錄 青海伯祠堂 尹萱先生墓 防禦使邊應星善政碑		외삼미동 내삼미동 내삼미동 서동 세교동 두곡동 소장자: 심재성 오산시 가수동85 오산시 세교동 오산시 지곶동	
유 적 유 물	安致文 教旨 金鼎九 教旨 金重聲 教旨 金宗植 勅命 禿城麗王陵 金銅菩薩立像		오산시 양산동 오산시 갈곶동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자: 안재영 소장자: 김성태

1. 독산성(禿山城) 및 세마대지(洗馬臺址)

지정번호 : 사적 제140호

지정연월일 : 1964. 8. 29.

시대 : 삼국시대

소재지 : 오산시 지곶동 155

소유자 : 국유 및 사유

규모 : 1만2백84평

독산성(禿山城)은 독성산성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 성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7월, 당시 전라도관찰사 겸 순변사(全羅道觀察使兼巡邊使)였던 권율(權慄) 장군이 전라도로부터 근왕병 2만여 명으로 이곳에 진격 주둔해 행주산성으로 이진(移陣) 할 때까지 왜적 수만명이 각기 길을 달리하여 침략하는 것을 임기응변으로 나아가 적을 치고 성을 굳게 지킴으로써 서진하는 적의 진로를 차단한 곳이다.

독산성의 처음 축조연대는 분명치 않지만, 독산성의 위치적 특성이 용인·양지간에 있는 고성과 남한산성이 기각지세를 이루어 왕도의 문호를 굳게 한다는 전략상의 이점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백제가 쌓은 고성이었고 신라통일기나 고려시대에서도 군사상 요지로 돼 왔다.

대체로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하삼도(下三道) 연안에 왜구들의 침범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쟁이 없는 평화시절이 계속됨으로써 산성의 축성이나 수축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독산성의 기록 역시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성을 수축하였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임진왜란 7년을 겪는 동안 군·민이 합심해 산성의 수축과 왜적의 방어는 물론이지만, 특히 민심을 안정시켜 민정(民丁)을 모집시키는 일에서 독성지례(禿城之例)에 의해 의외 지환(意外之患)을 대비케 한다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임진왜란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1594년(선조 27)에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불과 4일 동안에 민이 합력하여 산성을 수축한 일이 있고 1595년(선조 28)에는 다시 성침을 대략이나마 이루고 또 포루를 설치하는 것을 백성들이 와 보고 성을 지킬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선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1597년(선조 30) 2월에는 왜적의 신예무기인 조총을 방어하기 위해 편편한 집을 성벽안 주위에 채우고 성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구멍창을 만드는 한편, 그 집 속에 석차나 포차를 배치하고 성 밖으로는 목책을 세우려고 계획했었다. 이러한 독산성의

중요성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난 1602년(선조 35)에 당시 부사였던 변옹성(邊應星)이 다시 석성으로 수축했다.

그 후 1792년(정조 16)에는 독산성의 고유제기(告由祭器)라든가 제문의 격식을 정하고 산성을 수축함을 토신에게 고하는 큰 제사가 베풀어지기도 했으며, 1796년(정조 20)에 개축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개축 당시의 성둘레는 1천8백보(1보6척)였고, 문이 4곳이었는데 현재에도 4개의 성문이 있다.

독산성은 군사기지로서의 주요 위치에 놓여 있긴 하지만 샘물의 부족이 흡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1593년(선조 26) 명나라 원군이 평양을 수복하고 남하함에 전라도순변사이던 권율장군이 명군과 호응하여 서울을 수복코자 2만명의 군사로 이곳에 진을 치고 대군과 대치한 독산성 전투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때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끈 왜군은 이 별거승이 산에 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탐정군사에게 물 한 지계를 산 위로 올려보냈다. 그러나 권율장군은 왜군의 의도를 깨뚫어 보고 백마를 산 위에 끌어올려 흰쌀을 말에 끼얹어 말을 씻는 시늉을 하게 하였다.

이것을 본 왜군은 성내에 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퇴각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샘물의 부족한 단점을 권율장군이 슬기롭게 극복한 세마대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세마대는 1957년에 복원되었다.

1) 독산성의 자리와 역사

독산은 본래 석대산, 혹은 향로봉이라고 불려 왔고 조선시대에는 독성산이라 불려 왔으나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이 꾸었던 진묘(眞妙) 한 병법전략에 연유해 지금은 '세마산' 또는 '세마대'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정상에는 '세마대'라는 현판이 붙은 누각 건물이 있다.

독산성의 성명(城名)은 삼국시대에서도 지금과 같이 '독산성(禿山城)'이라 하였으나 조선조에서는 '독성산성(禿城山城)'이라 하였다.

독산성의 위치는 북위 37도11분, 동경 127도01분30이며 수원에서 남행하는 국도를 따라 10km 가량 내려가면 병점을 지나 세교동에 이른다. 이곳 세교동의 국도에 직교하는 소도로가 동서로 분기되었는데 이곳에서 서향하여 3km 거리인 지곶동에 있다.

독산은 해발 2백8m로 수원·오산간을 에워싼 주변 평원에 우뚝 선 산이다. 세마대의 주봉은 북쪽으로 훌러 양산봉 해발 1백82m에 이어진다. 여기에서 서북쪽으로 4km 가량 떨어진 화산 산록에는 용릉과 견릉이 있으며 성황산 아래 자리잡은 용주사가 내려다 보인

다. 옛 읍치의 터전으로 구읍성지가 남아 있는 용릉으로부터 독산성으로 이어진 넓은 들의 한 가운데에 황구지천이 남행해 흐르고 있다.

독산에 일찍이 성책이 설치되었던 것은 이렇듯 주변지세를 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해안 남양 주위에 설치돼 있는 여러 방어시설들과 서로 관련을 가지며, 또한 화산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지방읍치가 이루어졌던 까닭에 유사시에는 백성들을 피신시켜 외적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도읍지 서울을 수호하는 외곽진지로서도 독산성이 남한산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인 선조 26년 10월에 관찰사 유성룡(柳成龍)이 왕께 건의하여 올린 글에

「廣州 南漢山城과 水原禿城과 桂州 桂之山은 모두 山險이 기이하고 險함이 서로 關聯되고 있어 여기를 지킴으로써 可하湖南을 막을 수 있은 즉 京畿防禦使를 差出하여 廣州·利川 등지의 軍事를 모두어 京城을 지킴이 좋을 듯하다.」

또 3년 후인 선조 29년 4월엔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로서 유성룡이 상계한 것을 보면

「水原禿城에는 이미 城堞이 修理되었고 器機가 完備되어 府의百姓이 安住하려고 하니… 中略… 또한 龍仁 陽智에는 古城(石城)이 있어 地形이 險하고 緊要함이 禿城 보다도 낫고 곧은 길이 있어 要衝이니 여기에 군기와 군량을 비축하고 訓練하면 右로 禿城에 접속되고 左로는 南漢山城에 連하여져 솔발의 勢를 이루니 京都의 門戶로서 堅固할 것입니다.」

또한 선조 33년 4월 비변사에서 올린 것을 보면

「水原은 곧 兩湖(忠淸·全羅)의 要衝之地이고 혹자는 禿城에 샘물이 不足함을 염려하여 大軍이 駐屯하는데 宜當치 않다고 하나 이미 城을 修築하였으니 협되어 버려서는 안될 것이며, 퇴락된 곳은 고쳐서 첫째는 亂을 避하고 둘째는 적을 두렵게 할 수 있으니 京城을 호위하는데 眞實로 便利하고 有益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도를 지키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원부가 현재의 수원성(화성) 팔달산 동편으로 옮기기까지 도호부 본진과 가장 가까운 산성으로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 기호지방의 군사지휘를 하였었다고 본다.

수원의 행정지위는 고려 충경왕 12년 도호부로 승격된 이래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계속되었는데 조선초 수원도호부 관하에는 1개 도호부(남양), 2개 군(안산·안성), 4개 현(진위·용인·양성·양지)을 관할하여 호수가 1천8백42호에 인구는 4천9백26명,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 1백97명, 선군(船軍) 4백5명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관장하는 지역이 달라지면서 조선 후대에는 3도호부(부평·남양·인천), 2개 군(안산·안성), 7개 현(진위·양천·용인·금천·양성·김포·통진)이 부(府)의 진관이 되었다.

선조 35년에는 수원부사가 경기방어사(京畿防禦使)를 겸하였고, 현종 9년에는 별중영장(別中營將)을 겸하였으며 또 숙종 13년에는 총융좌영장(摠戎左營將)을 겸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원성을 새로 축성할 즈음인 정조 16년 진(鎮)을 남양으로 옮겼다.

예로부터 경성에서 충청과 전라도 방면으로 내려가는 교통은 대체로 과천·수원을 경유해 진위·평택을 거쳐 남행하게 되었는데, 수원 아래 명점에서 다시 갈라져 괴대(槐臺·양성 산하)와 아산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독산성과 화산의 중간 사이로 나와 있음을 고지 도에서 볼 수 있다.

독산성의 4개 문 중 남문과 서문이 다른 문에 비해 크게 축조되어 있는데 이는 독산성의 동서쪽 양쪽 곁으로 지나는 두 도로에 접(接)하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통신수단인 파발(擺撥)도 위의 두 노선으로 통과했던 것으로 보이며 변경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변경의 기지(基地)에 알리던 봉수제도는 서부해안을 경유해 충청도·전라도에 연결되었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서는 전국을 통괄하는 직봉제(直烽制)의 제5거(炬)로서 남쪽 전라에서부터 은진·노성·공주·천안·직산을 거쳐 온 경로가 괴대(양성)~홍천산(수원)~염불산(남양)~해운산(안산)~성산(인천)~백석산(김포)~수안산(통진)~대모성산(강화)~남산(통진)~개화산(양천)~서울 목멱산(木覓山) 제5봉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독산성에 봉수를 설치하는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숙종 16년 4월에 호조참판 이의징(李義徵)의 상계(上啓)에

「水原은 京畿의 重鎮인데 燐燧가 소홀이 되고 빠져 있다.

陽城 槐臺의 烽火는 水原 天柱(興天山인듯)에 應하고 여기서는 또 南陽 念拂山烽火에

應하는데 天柱에서 水原까지의 거리는 50餘里에 重峰과 첨첩한 山이 층층이니 설령 警報하는 일이 있어도 直接 볼 수 없고 봉군이 달려와 보고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니, 본부 남쪽 5리에 있는 禿城에 烟臺를 設置한다면 南으로 槐臺에 應하고 西로 天柱에 연결되어 三南警報가 빠를 것임.」

을 건의하여 왕이 독성에 연대(烟臺)를 가설토록 명했다고 하였다.

또한 영조 30년에도 독산성에 봉수 설치를 청해 허락되었다 하였는데 산성 주변에서 그 유지(遺址)를 발견치 못하였다.

그 밖에도 건달산 봉수와 안산 봉수가 독산성 인근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퇴폐(退廢)되었다. 홍천산 봉수는 지금 화성군 우정면 화산리에 그 유구가 남아 화산리(花山里) 봉수라고 부르며 독산성에서 가까운 화성군 내에 남아있는 봉수터로는 상안리(서신면) 봉수·독지리(송산면 독지리) 봉수·요리성지(향남면 요리) 봉수 등이 있는데 모두 간봉(間烽)으로 홍천산과 염불산 봉수에 연결했던 듯하다.

2) 독산성의 축성

1977년 문공부에서 간행한 전국문화유적총람에 의하면 「독산성 및 세마대지」의 연혁에 대해

- ① 백제 때 축성된 고성(古城)이었고
- ②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도 군사상 중요한 요지로 되어 왔는데
- ③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이 주둔했고 변이중(邊以中)으로 하여금 화포를 발명제작케 하여 행주대첩(幸州大捷)에서 승전케 하였고
- ④ 임란 후 조정에서 독산성에 세마대를 장엄하게 세우고 병기창을 두어 무예연습을 하게 하였으며
- ⑤ 선조 35년(1602) 부사(府使) 변응성(邊應星)이 다시 석성으로 수축하였고
- ⑥ 정조 16년(1792) 독산성과 세마대를 중수하고
- ⑦ 세마대는 1957년 8월 구기(舊基)에 복원하였다.
- ⑧ 보적사(寶積寺)는 삼국시대 창건되어, 전란으로 중건을 거듭하다가 조선 정조 때 용주사(龍珠寺) 건립시에 재건되었다고 전하나 건물의 양식으로 보아 조선조 말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독산성의 초축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백제 때의 성이었다는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제

1편 온조왕조(溫祚王條)에

同王 十一年 四月에 樂浪이 鞍韁을 시켜 瓶山柵(城)을 파하고 一百番人을 살해하였으
며 同年 七月에 禿山과 狗川에 두 柵을 세워서 樂浪과의 通路를 막았다.

여기에서 역주자(譯註者)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병산성이나 독산·구천 두 책의 설치 위치를 미상으로 하였다. 이 당시는 백제 건국 초기의 하남천도(河南遷都) 이전으로 북쪽으로 낙랑과 동에 있는 말갈족의 내침이 잦아 왕이 거주하던 하북 위례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마수성(馬首城), 병산책 등을 설축 또는 설책함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권 24, 근초고왕조(近肖古王條)에 보면

同王 28年 二月에 使臣을 晉에 보내어 朝貢하였다. 七月에 青木嶺에 城을 쌓았다. 禿山城主
가 三百人을 거느리고 新羅로 달아났다

이때는 수도를 한성(漢城·春宮里)에서 한산(漢山·지금의 남한산성)으로 옮긴 직후였고 청목령은 개성 부근이고 독산성은 오산에 있는 지금의 독산성을 지칭함이 아닐까 하고 역주자도 밝혔다. 여기에 대하여 같은 시기인 신라 내물왕대를 찾아 신라본기 내물이 사금조(奈勿尼師今條)를 보면

同王 18년에 百濟 禿山城主가 三百人을 이끌고 來投하므로 王이 이를 받아들여 六部에
分居케 하였더니 百濟王이 書를 보내 항의를 하며 되돌려 보내 줄 것을 請하였다.

그 이후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고려대에 내려와서 요충지였던 이 독산성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은 조선왕조에 들어와 경도를 방어하고자 하는 요충으로 남한산성과 독산성을 연결하여 방책을 삼았고, 특히 임란을 맞아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변사인 권율장군이 이곳에 진둔하여 왜병 수만명의 내침을 막아 성을 지킴으로써 적의 진로를 차단했다는 묘책은 잘 알려진 일이다.

독성에서의 수성과 보수 및 관리사항을 기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임란이 발발했던 1592년(선조 25)에 고성을 수축했다는 기록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비교편(備考篇)과 여러 문헌에 나와 있다.

문현명	명칭위치	성의 규모	수성제도	연혁
增補文獻 備考	禿城山城 在東七里	石築 周5里 女堞303		
輿地圖書	禿城山城 府南十里	石城 周回5里 城堞303 墙高 三丈 在山倉, 鎮南樓	守堞軍 11名 使令14, 衛前13 知印九軍, 守四 婢子三	萬歷三十年 築石城
大東地志	府南三十里 禿城山城	周一千八百步 門四	中軍兼把總 別將 1名 留鎮將 1名	선조 25년 修築古城 선조 35년 修築 (府使 邊應星)
新增 東國輿地 勝覽	禿城山城 府南三十里	高三丈 千八百步改築 門四	地志와 同一	선조 25년 고성수축 선조 35년 수축

1594년(선조 27) 전란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독성을 수축하였는데 이때에 경기 관찰사 유근(柳根)이 올린 장계(杖啓)를 보면

禿城山城 修築하는 일은 今月十一日에 始作하여十四日에 畢役하였습니다… 中略…
城內에다 倉庫를 設置하여 穀食을 쌓을 計劃으로 일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水原에는 土豪들이 많아 築城의 부역이 困難하여 他地方民을 動員 매우 督促하여 畢役을 하였다.

이때 수축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으나 단 4일간의 수축이었다니 난중에 총망하게 이루어진 역사인 듯하다.

계속해 독성의 수성방책과 군비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분분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보고가 올라오게 되었다.

城堞이 整備되고 破樓를 設置한 까닭에 百姓들이 城을 지키고자 하는 意向이 높아지고
民心이 安定되어감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왕조실록에 자주 보이는데 선조 30년 정유 2월 재란이 있은 후 왕이 경

기관히를 순시하며 수행한 신하에게 물음에 답하기를

龍津의 婆娑城과 禿城에는 軍器와 군량은 다 갖추었으되 다만 禿城에는 물이 없다 하여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리고 …중략… 또한 禿城에는 附臨하는 山이 있어 防禦使 邊良傑이 城 위에 築土하고 平墳해서 집을 짓고 창을 내어 石車(돌차)와 砲車(포차)가 그 가운데 들어갔고 城 밖에 木柵을 세워 그 틈사이로 敵을 쏠 수 있으니… 다만 물이 부족하고 하늘이 가문족 군대를 머물게 하기 어려울 뿐이다.

7년간에 걸쳐 전국을 그토록 어렵게 하며 역사상 가장 혹심한 피해를 남겨준 전란이 평정된 후 조정에서는 그간의 방위체계를 재점검해 보며 후일의 외침에 대비하여 각 처의 성첩과 방수시설(防戍施設)에 대한 보강 보수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선조 35년(1602)에 당시 수원부사 변옹성(邊應星)에 의해 독산성이 다시 석성으로 수축되었고 세마대를 장엄하게 세우고 병기창을 두어 화기와 화포를 제작하게 하였으며 군정(軍丁)을 모아 군사훈련을 하였던 듯하다.

이후로도 중군으로 파총(把總)을 삼아 주진(駐鎮)케 하다가 숙종대에 들어와 총융사 김익훈(金益勳)의 건의로 별장이 파견돼 오고 총융청의 군량을 독성에도 옮겨 쌓게 하였다.

숙종 16년 4월 호조참판 이의정(李義徵)의 건의에 의해 독산성에 봉수(烽燧) 연대(烟臺)를 설치토록 명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다시 영조 30년(1753) 7월에 호남어사 홍재(洪梓)가 복명하는 서계별단(書啓別單) 중에 「완영(전주영문)과 수원 독성산성에 봉수를 설치하여 엄보경지구(嚴報警之具)로 삼게 하기를 청하옵니다」하고 「王이 이에 따랐다」고 하였으니 이때에 봉수가 설치되었던 듯하다. 영조는 재위 26년 9월에 독성에 친히 순행하여 군기수련을 엄명하기도 했었다.

정조가 즉위한 후 부왕의 능원을 옛 수원부의 치소였던 화산(花山)의 현릉원에 옮기면서 수원행차가 잦아졌고 능행시에는 가까운 독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친히 순행하여 살피었음을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정조 14년 2월에는

禿城山城에 行次해서 將臺에 臨하고 運籌堂에 이르러 山城父老를 불러 위로해 가로되
… 중략 …上이 庚辰年 溫幸中에 禿城에 들러 運籌堂에 宿所를 삼고 鎮南樓에 下臨하여 활을 쏘니 連해서 네 학살이 맞았다.

여기애 보이는 운주당이라는 건물명이 어느 건물을 지칭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곧이어 둘레 사천팔백보(四千八百步)의 화성(華城·수원성)이 완성돼 부의 치소를 팔달산 동쪽 성내로 옮기었으나 독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다.

그리하여 독산성을 수축하고 토신(土神)에게 고유토록 하였는데 고유제품(告由祭品)과 제문(祭文)의 경식을 정하여 부사가 현관이 되고 중군 및 부내 당상관이 추천한 조신(朝臣)이 다음 현관이 되고 향과 축문인즉 향관이 경기감영에 전하고 경기감영 정문찰방(定文察訪)이 대축관을 겸해 행사를 치렀다고 하였다(정조실록 16년 7월). 같은 해인 정조 16년 10월에 독산성을 수축하고 세마대를 중건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戊辰 修 禿城山城 城周一千四步 體城新築 七百參十二步 修築二百七拾 二步, 水門三,
改築女城 三百九堞, 新築 南將臺 移基三尺改建

이라 하였으며 왕이 교서를 내려 지시하기를

山城은 重한 땅이요 園寢에 가깝고 또 庚辰年に 駐宿하던 處所다. 將臺는 곧 鎮南樓인데 前年에 登臨하던 곳으로 지금 修築한다 하니 마땅히 碑文을 지어 내릴 것이되 前任奎章閣臣 中에서 左相이 지어 올리라

여기애 보이는 비문이나 비석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는 독산성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내려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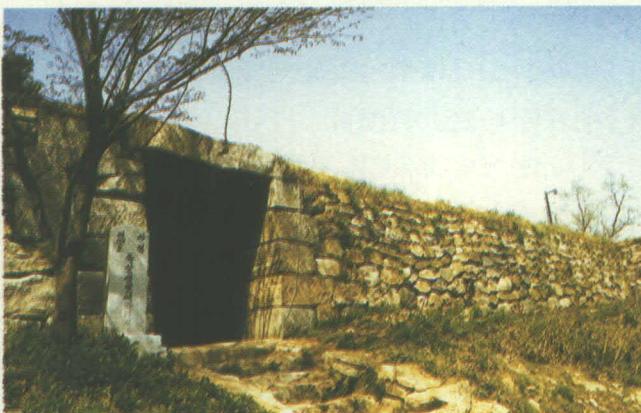
경술년(1910년) 한일합방 후 일인들이 세마대를 철훼하고 성내에 거주하던 주민을 분산 이주시켜 오다가 1957년 지방민을 중심하여 「세마대 중건위원회」가 조직되어 그해 8월 15일에 구기(舊基)에 복원(復元)하였다.

3) 산성의 구조·유구 및 유지

(1) 현상

1982년 독산성 보수계획에 따라 「새한문화건설연구소」가 조사한 당시 성의 현상과 구조·유구 및 유지에 대한 독산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마대가 자리잡은 해발 2백8m의 산정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낮은 야산을 여러 겹



독산성

안고 있는 화성평야가 전개 되며 서북쪽으로는 수원 외곽을 지나 세마대를 우회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황구지천이 내려다 보이고 그 건너 옛 읍성터의 용건릉과 용주사가 멀리 바라다 보인다.

성벽은 산봉우리에서 내려와 8부능선을 따라 경사

면에 삭토(削土) 하여 축조하였는데 체성(體城)의 상부는 거의 무너졌고, 어느 곳엔 성기(城基)만 남아 있고, 또 일부는 유사(流砂)로 매몰되거나 성기조차 유실돼 없어진 곳도 있다.

반면 여담의 하단부가 남아 있는 곳도 있어 여담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남아 있는 여담 부분은 막돌로 쌓아 강회를 빌라 마감한 상태로 되었으며 주위에 포방전(전돌) 조각들이 산재해 여담의 옥개부를 형성했던 모습을 상상케 한다.

또한 남문과 서문 사이의 성내 평탄지와 구릉지에는 여러 겹의 석축열과 대지(臺地)가 형성돼 민가가 들어섰던 자리임을 느끼게 한다.

남문과 북문을 수년 전에 보수해 양 문의 주변 성벽만이 정돈돼 있으며 성내 사찰인 보적사가 성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독산성은 우뚝 솟은 봉우리를 에워싸듯 둘러 있다. 동북쪽은 높고 서남쪽은 낮게 자리 를 잡았다. 봉우리 정상부에 세마대가 있다.

사방이 잘 보이는 정상부는 장대(將臺)로서 적당하다. 세마대와 그 주변의 제법 널찍 한 터는 장대지(將臺址)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대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석축이 있다. 확실하게 성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성(本城)에 비해 약간 조잡하고 쌓은 수법도 격이 떨어진다.

이것은 본성과 구분해 내성으로 추정된다. 이 내성의 출입구는 동문쪽과 남문쪽의 2개 소로 보이나 현재 흔적이 완연한 곳은 동문과 인접된 보적사 북서쪽에 있다.

내성에 여장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축석 상태도 치졸해 성벽으로서의 역할보다 장대를 이루는 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본성의 총 연장은 약 1천1백 m이고 내성은 3백50m이며 성내 면적은 약 2만평이 된다.

(2) 구조

성벽의 잔존 상태가 좋은 곳을 골라 그 높이를 측정한 결과 대개 1.8m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다. 전체 성의 규모도 작은 편에 속하는 이 성의 성기는 지형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사방에 문을 내고 있다.

밖으로 경사진 곳에 터를 잡을 때에는 기초부분을 보축해 든든하게 한 다음 본성을 쌓았다.

보축(補築)은 계단형으로 경사에 맞게 축석하였다.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성기부(城基部)에 비교적 큰 석재를 이용하였고, 성문의 좌우는内外면을 돌각담 쌓듯이 협축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

협축형의 성벽으로 뚜렷한 곳은 남문에서 동문쪽으로 가는 능선 위에 설축된 성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성벽의 외부보다 내부지형이 더 깊고 급경(急傾)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난 형태로 보인다.

내벽의 축석수법이 조잡하여 당초부터 협축으로 고안된 것인지, 혹은 내탁식(內托式) 성벽으로 계획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성벽을 쌓은 기법은 외경(外傾)한 경사면에 성기를 잡아 축석한 것으로 내부에 잡석을 채우거나 흙을 충전(充填)시켜 상부는 평토하였다.

이는 마치 축대와 같은 구실을 겸하게 돼 성기(城基)를 내잡은 만큼의 넓이가 가용면적으로 증대되며 축석방법도 용이해진다.

동문에서 북문간은 낮은 능선에 인접해 외부경사를 삭토하여 성벽을 쌓고 내부에 내탁(內托)을 만들어 내부구릉에서 흘러내리는 우수를 받아 흐르게 하며 또한 통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성축하였다.

경사면과 능선에 따라 축조한 성벽 여러 곳에 돌출부가 있다. 체성의 길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성된 것은 아니고 능선의 지형이 성벽에 직교돼 돌출하여 사방 조망이 뛰어난 곳에 「ㄷ」자형으로 튀어 나왔다.

일반적인 산성의 치(雉)에 해당되는 바 전후좌우의 감시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좌우의 성벽보다 좀 더 높게 쌓아 올렸다. 치는 동문과 북문 사이에 2개소, 북문과 서문 사이에 1개소 서문과 남문 사이에 3개소, 남문과 동문 사이에 2개소 등 모두 8개소가 설치돼 있다.

그 중 일부에는 여장(女牆) 하부 지대석이 남아 있으나 다른 시설물을 축조하였던 흔적은 볼 수 없다. 여담은 성벽의 높이를 매듭지은 상부에 설치하였으며 방어하고 또 공격

시 몸을 감추기 위해 3척 내지 5척 높이로 축조하였으리라 여기는데 현존하는 여담의 잔존부는 성벽 상부 외측에서 3~5층 정도 안으로 들여서 폭을 60~80cm정도로 여담 지대석을 놓았다.

남아 있는 여담 높이는 20~30cm로 상부가 파손 유실된 상태다. 막돌을 이용해 축조하였고 돌 틈사이는 강회를 발라 마감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성벽이 파손·붕괴된 곳 부근의 지표상에서 완형, 혹은 파손된 포방전이 산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담 상부를 포방전(전돌)으로 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채집된 포방전의 규격화된 형태에서 타구와 총안도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축성기법

축성을 견고케 하기 위해 당대의 사람들은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산성의 경우 많은 양의 석재를 어떻게 운반하였으며, 성벽을 불규칙한 크기의 산석이나 절단된 부분이 매끈하지 않는 석재로 성벽을 쌓으면서 생기는 틈을 작은 돌로 메움하여 성벽면을 빤히 없이 꽉 채운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축성기법에서 가장 주의깊게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성벽의 경사도다. 성벽단면이 잘 남아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외벽의 경사도는 급경사로, 이는 성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직에 가까운 각도를 주어 축석(築石)되었다.

치(雉)의 중앙단면 부분에서는 돌출부를 구성하기 위해 하부는 계단식으로 퇴물림하여 곡선을 이루며 오르다 주위 성벽 지대석 위치의 높이에서는 성벽과 같은 경사도로 기울기를 잡는 수법으로 축석하였다. 남서 2치에서 성벽의 하부가 70cm 정도 뛰어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성벽고(城壁高)가 높은 곳에서 기초부분을 성벽보다 더 넓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하부 성벽과 모서리 쟁들은 대석(大石)을 이용해 서로 모가 잘 물리도록 견고하게 축석하였다.

(4) 유구(遺構)

① 수구(水口)

성내의 유수량이 많고 장마 때엔 더욱 짐수가 많았을 것을 감안한다면 세마대지를 봉우리로 하여 태뫼식 성기를 잡은 이 독산성에서 경사지를 타고 성벽쪽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 성내 지형으로 보아 비교적 낮은 곳에 자리잡은 동문·서문·북문 주위에 유

수량(流水量)이 몰려 성문으로 직접 배수가 되도록 하였던 것 같다.

서문과 암문(暗門) 사이의 성벽 수구가 1개소 있는데 출수구(出水口)의 크기는 폭 45cm, 높이 52cm, 바닥은 판석을 깔았음이 확인되었다. 남아 있는 출수구 인방석 하단에서 상부 지표면까지의 높이는 1m며 상부 지표면에 수구 덮개석 3장이 노출되었다.

덮개석은 두께 25~40cm, 폭 25~45cm, 길이 75~1백10cm의 자연석을 덮었으며 입수구쪽의 표토제거에서 확인된 수구의 내부 폭은 30cm, 깊이는 45cm로 양편에 석축을 출수구보다 입수구의 폭을 좁게 쌓았으며 바닥에는 박석(薄石)을 설치하지 않았다.



독산성 수구

② 우물(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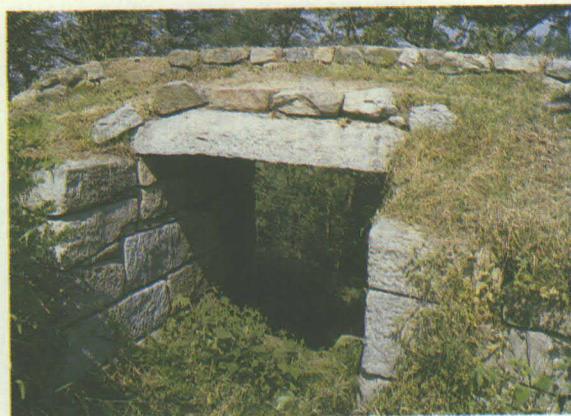
성내에는 주둔하던 병사들이 사용했을 우물과 후에 인가가 들어섬으로써 식수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3기의 우물을 볼 수 있다.

현 보적사(寶積寺) 마당에 설치된 우물은 지반을 굴토하여 막돌을 원형으로 쌓았으며 지름 1.2m, 깊이 83m로 깊게 축조하였으나 수량이 적어 가뭄에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문과 암문 사이에 위치하는 우물은 지름이 1.4m, 깊이 1.3m의 낮은 막돌 석축을 원형으로 쌓아 축조되었다. 남문 남쪽의 옛 민가지였던 석축에 인접되어 파손된 우물이 현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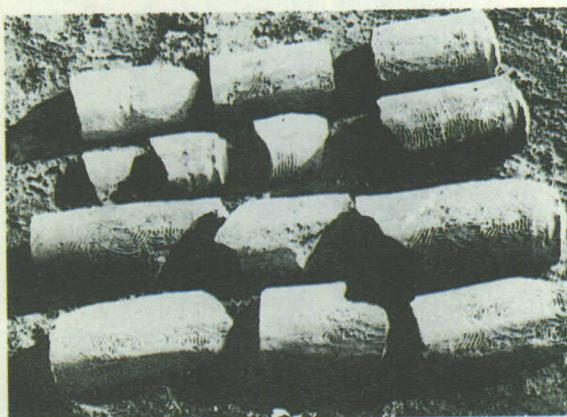
독산성 우물



독산성 동문내부



독산성 북문외부



암기와·숫기와 편(片)

③ 성문지

성문은 동·서·남·북의 4문과 1개소의 암문으로 총 5개소의 문지가 유존한다. 각 문지는 성내외로의 출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돼 있다.

다만 동문과 암문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어렵게 돼 있어 다른 문지와 구별된다. 남·서·북문지는 지형상 낮은 부분에 설치돼 비교적 통행이 용이하다.

성문의 규모로 볼 때 남문과 서문이 가장 크고 동문이 제일 작다. 따라서 주 출입문은 남문과 서문으로 추정된다. 암문의 위치는 남문과 서문 사이에 있다. 독산성 성문간의 거리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중간에 설치된 이 문은 본성의 거의 정남에 위치하고 있다.

문지는 육축(陸築)을 쌓고 그 위에 문루(門樓)를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육축의 중앙통로는 홍예로 하지 않고 모두 장대석을 수평으로 가로질러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문과 북문은 1979년 보수하였고 동문은 1982년에 해체, 드잡이하여 보수했다.

④ 독산성(禿山城) 보수시 출토유물(出土遺物)

서문지에서 완형에 가까운 수키와가 여럿 출토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양식으로 보이며 퇴적토 하부에서는 암기와의 등무늬가 격자문(格子文)과 사선문(斜線文)으로 나타나 있는 고려대의 것과 토수키와로 보이는 파편에서는 선이 굵고 골이 깊어 강한 인상을 주는 삼국시대의 와편 일부가 출토됐으나 대부분 조선시대의 파편이 많다.

○ 전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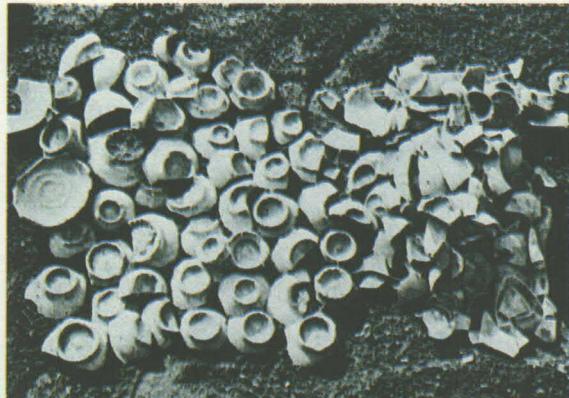
붕괴된 성벽 주위 지표면과 문지의 매몰된 토사에서 다수 출토되었으며, 채집된 전돌 중에는 완형에 가까운 것으로 규격이 각각 다른 7종류의 전돌이 수집되었다.

성벽 주위에 많은 전돌편이 흩어져 있는 것은 성벽 위에 여담을 쌓던 흔적으로 보아 여담 하부는 잡석으로 쌓고 틈 사이는 강회로 미장하였으며 상부(옥개부)는 전돌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자기(磁器)·도기편(陶器片)

성내의 지표에서 소편들이 눈에 많이 띄며 서문지와 암문지의 매몰 토사에서는 백자편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비교적 큰 파편도 있고 그릇·접시와 같은 기형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도 더러 있다.

어떤 것은 19세기 이후의 것으로 성내 주민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鉢)이나 접시 등의 파편들이 많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기물이 공존하고 있다.



출토된 자기·도기편

4) 권율장군의 세마병법

임진왜란 당시 순변사로 있던 권율장군은 전라도 각 지방의 관군을 규합해 왜적과 싸울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평양성을 탈환한 명나라 군사가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명나라 군사와 힘을 합쳐 한양 탈환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권율장군은 명나라 군사와 합세해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순변사의 본영이 있는 경기도 광주로 향했다.

한편,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남으로 내려오던 명나라 군사는 벽체관 전투에서 패하고는 다시 후퇴하고 말았다. 한양에서 불과 1백여리 떨어진 수원에서 이 소식을 들은 권율장군은 땅을 치며 탄식하였으나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만으로는 도저히 한양을 탈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한양으로 쳐올라 갈 것을 단념하고 독산성에 군사를 임시로 주둔시키고는 노략질을 일삼는 부근 왜적들을 물리쳤다. 권율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수원지방에 웅거하면서 왜군을 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양에 주둔하고 있던 왜병들은 큰 위협을 느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한양으로 오려면 수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양의 문턱이었다. 따라서 수원이 만약 권율장군에게 점령된다면 남쪽으로부터 오는 자신들의 보급선이 끊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쪽에서 한양으로 오는 길은 두 길이 있었다. 하나는 부산~대구~수원을 거쳐 오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 직접 제물포로 들어오는 항로였다.

그런데 당시 제해권은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적들이 해로를 통해 한양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때문에 육로만은 반드시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왜장은 군사를 보내 권율장군을 치기로 결정했다. 권율을 치기 위해 선발된 왜장은 가토 기요마사였다.

“지금껏 싸워 이겨 본 적이 없는 조선의 오합지졸이다. 곧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니 제군들은 힘껏 싸워라.”

가토의 말이 떨어지자 왜병들은 조총을 쏘아대며 산성으로 진격해 왔다. 그 산성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바위 위에 우뚝 솟아 있어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는 바위뿐이었기 때문에 독산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지키기는 쉬워도 밑에서 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겁내지 말고 싸워라, 성이 함락되면 우린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권율장군은 시위군사를 거느리고 순시하며 군사들을 지휘했다. 왜적들에겐 그 당시 서양에서 수입한 조총이 있는 반면, 조선군은 재래식 무기인 칼과 창, 그리고 활뿐이었다. 다만 조선군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면 험한 산성의 지세와 권율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용기였다.

조선군은 재래식 무기인 활을 가지고서도 지세를 충분히 이용해 조총으로 무장한 왜적들을 맞아 잘 싸웠다. 처음에는 조선군을 깔보고 덤비던 왜적들도 자기편만 자꾸 쓰러지자 사기가 떨어져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가토가 전진을 명령하자, 왜적들은 다시 전진해 왔다. 그러나 조선군의 화살에 왜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왜적들이 다시 뒤로 후퇴하자 왜장은 긴 칼을 휘둘러 자기편 군사의 목을 쳤다.

악이 치받친 왜적들이 다시 전진해 왔지만, 빗발같이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전상자만 속출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가토는 일단 군사를 후퇴시켰다.

“저 산성의 지세를 보니 참으로 치기 어렵게 되어 있구나. 그러나 사방이 바위뿐이니 저 산성에는 분명히 물이 없을 것이다. 군사를 뒤로 물리고 조선군의 물과 양식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자.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니 며칠만 포위하고 있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군사를 뒤로 물리고 근방의 지세를 살핀 가토는 이렇게 말했다. 가토의 관찰은 적중했다. 하루 종일 싸운 조선 군사들은 목이 말랐다. 그러나 사방이 바위뿐인 산성엔 군사들의 목을 축일 충분한 물이 없었다. 군사들이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권율장군은 “염려할 것 없다. 나에게 계책이 있으니 왜적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말과 쌀을 대령시켜라.”

부하 장수는 대장의 명령에 어리둥절했지만, 명령에 따라 말과 쌀을 적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산성 꼭대기에 올려다 놓았다.

“말을 그곳에 매어 놓고 말등에 쌀을 끼얹어라. 멀리서 보면 마치 말에게 목욕을 시키는 것 같을 것이다. 왜적들에게 물이 그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권율장군의 말을 듣고 부하 장수들은 비로소 그 계책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군사들은 신이 나서 말등에 쌀을 끼얹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솔을 가지고 말들을 긁어 주었다.

한편, 군사를 멀리 후퇴시키고 성을 포위해 조선군의 물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던 가토도 이런 모습을 보았다.

“말을 목욕시킬 정도로 물이 많다면 저 바위 꼭대기 어딘가에 샘이 있는 모양이다. 샘이 있다면 아무리 포위하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돌아가자. 여기서 오래 지체하고 있다가는 한양이 위태할지도 모른다.”

결국 가토는 군사들에게 퇴각명령을 내렸다. 왜군이 퇴각하는 기미를 보이자 권율장군



권율장군 동상



세마대



세마대 현판

한다.

독산성 전투에서 크게 이긴 권율의 조선군은 행주산성에서 전사에 길이 남을 행주대첩을 거둔다. 그리고 임란이 끝난 후 선조는 독산성 세마병법에 의한 승리를 높이 평가하고 세마대를 짓게 했다.

이 세마대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자신들의 아픈 상처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나 1957년 지역 주민들과 유지들이 뜻을 모아 다시 세마대를 세운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세마대를 세울 때 이승만 전 대통령도 큰 관심을 보여 준공식 때 친필 현판을 보내어 현재 세마대라는 현판 글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글로 남아 있다.

지금도 독산성과 세마대는 학생들의 소풍장소와 역사탐방단의 방문을 수시로 받으며

온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크게 이겼다.

그리고 미리 왜군의 퇴각을 예견한 권율장군은 봉담면 일대에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왜병 3천 여명을 몰살하니 이름하여 삼천병마골이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후일 다른 왜장이 독산성에 들어가 샘터를 찾아보았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샘터가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왜장은 근처에 사는 백성을 잡아다가 물어봤다.

“이곳에는 샘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말을 끌어다 놓고 쌀로 목욕시키는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왜장은 가토가 권율장군의 지략에 넘어간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곳은 뒷날 권율장군이 말을 목욕시켰다고 하여 세마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당시의 승전을 기리고 있으며 전쟁에 대해 다시 생각케 하는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또한 오산시의 문화유적 중 가장 오래되고 뜻깊은 명승지로 자리잡고 있다.

2. 궐리사 성적도(闕里祠聖蹟圖)

지정 번호 : 유형문화재 제62호

지정연월일 : 1974년 9월 26일

시 대 : 1904년 (광무 8)

소재지 : 오산시 궐동

소유자 : 국유

규모 : 가로 70cm, 세로 32cm, 두께 1.5~2cm

재료 : 목판

오산의 궐리사(闕里祠)는 노성(魯城)의 궐리사와 함께 우리나라 2대 궐리사 중 하나인데, 1792년(정조 16)에 창건되어(정조16년 기공, 17년 4월 준공) 어서사액(御書賜額)되었으며 대성공자(大聖孔)를 봉사(奉祀)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공자의 64대 손인 공서린(孔瑞麟·중종 때 승지·경기감사·대사헌 등 역임)이 궐리(闕里)에서 서재(書齋)를 세우고 개강(開講)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 당시 전정(典庭) 은행나무에 복을 걸고 문하제자(門下弟子)들에게 공부를 계을리하지 않도록 깨우치며 교수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 은행나무가 자연고사하였다 한다.

정조가 현릉원(顯隆園)에서 멀리 바라보니 오미(梧美) 부근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군조(群鳥)가 슬피 울면서 운집하는 것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행차해 보니 은행나



성적도



은행나무



공자성상

무가 있었다.

은행나무의 유래대로 사당(祠堂)을 짓고 공자의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하게 하고 중국의 공자가 살던 곡부(曲阜)를 본따 궐리사라는 사액(賜額)을 내리니 홀연히 은행나무 근간에서 발아하여 성장하였다고 전한다.

사당내 좌측에는 1904년(광무 8)에 도약장(都約長) 조병식(趙秉式) 외 7인이 중국 산동(山東) 성에 있는 성적도(聖蹟圖)를 본따 제작한 성적도가 보관되어 있다. 피나무로 된 이 목판(木版)은 가로 70cm, 세로 32cm, 두께 1.5~2cm 정도 되는데, 양단에 나무를 깎아 목판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서문(序文)의 자경(字經)은 1cm 정도로 글씨는 정교하지 못하나 판장(板張)에 조각(彫刻)된 공자의 성적도는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3. 오산 궐리사(闕里祠)

지정 번호 : 기념물 제147호

지정연월일 : 1994년 4월 21일

시대 : 1792년(정조 16)

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공자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창건은 1792년(정조 16)이다. 『증보문헌비고』 권 210, 학교고, 각도 사원편에 수원궐리사정조임자건, 어서사액(水原闕里祠正祖壬子建, 御書賜額)이라고 있고 주나라 문선왕 공자를 모시고 있다고 적었다.

유도회 오산지부에서 작성한 연혁에 의하면 본래 사원이 있는 궐동에는 조선 중종 때 경기도관찰사를 지낸 공서린이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서재가 있었다고 하며 그가



오산 궐리사

죽은 후 빈터가 되었던 것을 정조 때 왕이 이곳에 사원을 세울 것을 명하여 창건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공자가 살던 지명인 궐리를 따서 사원명을 지었다고 한다.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다시 1900년 나라의 승인을 얻어 성묘를 중건하였으며 1974년에 도유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되었다. 1901년 이

래로 여러 차례 강당이 재건되어 현재 건물은 1981년에 다시 지어졌으며 그 후 삼문·홍살문 등이 갖추어졌다.

궐리사는 오산시내 북서쪽 시가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앞쪽에 넓은 경작지를 두고 뒤편에는 얕은 야산이 둘러싸고 있는 자리에 남향해 있다.

주변 야산에는 소나무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공자의 영정을 모신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식 건물이다. 금세기에 들어와 다시 지어지고 규모도 작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사당 건물의 격식을 갖추고 있고 내부에는 공자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사당 전면 좌측에 성적도를 봉안한 장각이 있고 사당과 담장 밖으로 한단 낮은 곳에 재실이 있었는데 궐리사 경내는 1996년 도·시비 지원으로 건립된 정면 5칸, 측면 3칸의 전시관과 강당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전시관과 강당은 우진각 지붕에 골기와를 얹은 전통 한식 양식으로 건립되었다.

1) 궐리사의 창건과 유래

공서린선생이 낙향하며 이곳에 강당을 세우고 강당 앞에 순수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 북을 걸고 두드려 제자들의 학업을 독려하며 여생을 보내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선생이 별세한 후 자연 폐허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2백여 년이 지난 정조 때에 이르러 왕께서 화산릉(華山陵)에 나섰다가 화남방(華南方) 오미(梧未) 부근에 군조가 운집하는 경관을 조망하시고 괴히 여겨 오미까지 행차하시어 이곳 은행나무에 얼킨 사연을 들으시고 즉시 경기감사에게 명하여 공부자의 성문(聖門)을 보수토록 하고 공자가 생거하던 중국 노나라에 있는 궐리사(闕里祠)를 본따 사액하고 당시 화성부 중규면 구정촌(華城府 中逵面 九井村)의 동명을 궐리로 개칭케 하니 이로부터 화성 궐리사란 공자의 성묘가 이 땅에 자리잡게 되었다 한다.

당시 기백(畿伯)이 왕의 전교를 받으러 화사(畫師)를 보내 문현공의 옛 터와 서재, 그리고 유정(遺井)을 도형하고 새로 자라는 은행나무를 그려 갔으며 같은 해 10월 7일 화성부사가 비장(裨將)을 파견해 정당(正堂)의 방위를 자좌(子坐)로 정하고 다시 비장 박동철(朴東喆)과 가의 이원형(李元榮)으로 감동관(監董官)을 삼아 정당 터를 개토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 4월 2일 정당의 수주상량(豎柱上樑)을 시작으로 동서재와 내삼문, 그리고 외정문과 정당 감실(龕室)을 완성하고 같은 해 6월 20일 공자의 영정 대 1본은 평택 광덕 영당(影堂)에서, 소 2본은 내각에서 배봉되었으며 이로부터 매년 동하기에 예조

에서 관상감에게 명해 3월 9월 상순으로 택일해 어제축문과 봉향을 하사하여 춘추로 석전을 봉행토록 하였다.

1871년(고종 8) 사원중설(祠院重設)처로 인정돼 대원군에 의해 훼철되었으나 고종 31년(1894) 이곳 사람들이 성문 유허에 설단을 하고 매년 3, 9월 상정일(上丁日)에 석전을 봉행하다 광무 4년(1900)에 다시 장례원 원경이 왕께 아뢰고 교지를 받아 성묘를 중건하고 유상을 봉안하였다.

그 후 일제침략으로 향자 마련이 어렵게 되자 1924년 신구 재임과 원근 사람들이 모여 향전 마련계획을 협의하고 곧이어 성금운동을 전개해 4천3백여 평의 제전을 마련했으며 다음해 모성지심이 돈독한 한 유림이 자기 소유인 밭 1천5백여 평을 궐리사 제전으로 헌납함으로써 점차 향자에 어려움을 면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궐리사의 운영실체가 사립화해 도유사·유사·장의색장 등의 직체를 두어 춘추석전과 삭망분향이 이어져 왔으며, 광무 5년(1901) 강당 6칸을 신축하고 당시 공자님의 76세손인 공재현(孔在憲)이 중국에 건너가 여성부(呂聖符)가 손수 조각한 진품 성적도(聖蹟圖)를 들여와 다시 판각으로 조각하였고 이 성적도 판각이 1974년 4월 5일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부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다소나마 당국의 지원이 계속돼 퇴락한 옛 강당을 철거하고 와즘 8칸의 강당과 성적도 판각을 보관할 수 있는 장각을 신축하고 주위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궐리사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4. 오산 금암동 지석묘군(錦岩洞 支石墓群)

지정번호 : 기념물 제112호

지정연월일 : 1988년 12월 2일

시대 : 청동기시대

소재지 : 오산시 금암동 산 53

소유자 : 국유

금암동은 예부터 이곳에 잘 생긴 바위가 많아 금바위마을로 불려 왔다. 이 지석묘군은 1988년 조사 보고된 것으로 금암동 일대의 지석묘 9기가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 밖에도 인접한 외삼미동에서 2기, 수청동에서 2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금암동 지석묘군은 금암동 일대의 구릉지와 논에 분포하고 있는데 상석의 크기는 장축이 1백90~6백cm에 이르며 형태는 대체로 타원형이다. 석질은 화강암이며 상석의 모서리 부분에는 치석한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장축의 방향은 지형에 따라 약간 이동된 것이 있

으나 남북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석묘의 유형은 지석이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2호 지석묘로 명명된 논둑에 있는 지석묘의 상석엔 3개의 성혈(性穴)이 있다. 크기는 직경과 깊이가 각각 3~5cm다. 이 성혈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 오목한 반구형(半球形)인 점과는 달리 구멍이 수직으로 파여 있어 석기의 의한 것이 아니라 금속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혈을 만드는 풍습은 전세계적으로 거석문화가 함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고 아들 낳기를 비는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라 한다.

이 지석묘들은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인접해 있는 외삼미동 지석묘는 석실이 지상에 노출돼 있는 형식이다.

1) 선사시대인의 생활과 문화개관

한국이라는 역사무대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수십만년 전의 전기 구석기시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들의 혈통이 오늘의 한국민족에게 계승되어 내려온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구석기인들은 동굴에 살거나 혹은 평지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한반도의 경우 동굴의 예로는 상원 검은모루동굴(평양시 상원군 흑우리)이나 포전리 점말동굴(충북 제천군 송학면 포전리)이 있으며 평지의 예로는 공주 석장리(장기면 장암리)의 집자리가 있다. 석장리의 집자리는 후기 구석기시대의 것이며 담을 두른 자리인 듯한 테두리 안에 노지(화로자리) 등이 남아 있다.

노지는 불을 이용해 난기를 쬐하고 요리했으리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들은 과일이나 나무뿌리 같은 것을 채집하는 한편, 동물을 사냥하여 먹고 살았을 것이다. 사냥하고 요리하는데 필요한 도구로는 타제석기(打製石器)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원석괴(原石塊·石核)를 깨뜨려 쓰다가 뒤에는 거기에서 떼낸 박편(剝片)들을 다듬어 썼다. 이렇게 만들어진 석기에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handaxe)·찍개(chopper)·찌르개(尖頭器-point), 요리도구인 글개·밀개, 공구인 새기개(刻刀-graver)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구석기인에 이어 마제석기와 토기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신석기인은 이미 BC 4세기 경에 한국에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원래 무문토기를 사용하였는데 함북 웅기의 굴포리, 부산 영도의 동삼동 유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토기는 즐문토기였음을 서울의 암사동 유적은 말해 주고 있다. 신석기인의 혈통은 구석기인과는 달리

뚫기지 않고 한국민족의 형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석묘는 청동기인의 생활상을 말해 주는 유적이다. 청동기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대체로 BC 9세기 내지 8세기에서 BC 4세기께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시기의 청동기 문화는 송화강과 요하유역으로부터 한반도에 걸쳐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때에 사용된 비파형동검·다뉴조문경(多鈕組文鏡) 같은 청동기와 적갈색 무문토기, 지석묘가 발견되어 청동기인의 활동무대는 남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청동기인의 무문토기 사용은 신석기인의 즐문토기 사용과 양자의 문화적 계승관계를 말해 주는 것이며 청동기인이 새로운 사회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청동기인의 유적은 주로 강을 따라 펼쳐진 평야를 앞에 둔 언덕진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로 미뤄보면 대체로 바닷가나 강가에서 어로잡이와 수렵생활을 했으며 수혈주거(움집) 또는 자연동굴·인공동굴에서 생활했던 신석기인과 달리 구릉지대에서 농경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벼농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는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나 유구석부(有溝石斧)를 사용한 사실로 알 수 있다. 반월형석도는 벼를 추수할 때 이삭을 자르는 돌칼이며 유구석부는 땅을 가는 농기구였다. 청동기 무기인 동검이나 청동화살촉의 사용은 석제무기밖에 모르는 신석기인을 쉽게 지배할 수 있는 정복을 활발하게 하였음을 말해 준다.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즐겼던 신석기인의 평화는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깨졌다고 볼 수 있다.

청동기인은 대체로 취락의 형태로 모여 밀집생활을 하였으며 정복을 위한 전쟁이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는 지석묘와 석관묘가 지배적이었다. 지석묘(고인돌)는 입석(선돌)과 함께 거석문화(巨石文化)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거의 각지에서 널리 발견되고 있는 지석묘의 형식은 탁자식(卓子式)과 기반식(基盤式)이 대표적이다. 탁자식(복방식)은 한강 북쪽에 많이 분포돼 있고, 지석이 작은 돌덩이고 개석도 돌덩어리같이 생긴 기반식(남방식)은 한강 남쪽에 많이 분포돼 있다. 한편, 전혀 지석이 없이 개석을 직접 매장부 위에 올려 놓은 지석묘도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다 분포돼 있다. 이 지석묘의 부장품으로 청동기도 있기는 하지만 마제석검이 흔히 발견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석관묘는 지하에 널찍한 돌로 상자 모양의 관을 만든 것인데 때로는 지석묘와 결합돼 나오기도 한다.

이 밖에 석관 위에 돌을 쌓아 올린 적석총(積石塚)도 있기는 하나 흔치 않다. 금암동의

지석묘군은 북방식과 남방식이 혼재한 양상을 띠고 있어 오산시의 청동기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정된 9기 지석묘의 형태·규모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금암동 지석묘군의 현상

(1) 지석묘(1호)

이 지석묘는 오산시 금암동 164 한윤수씨 집안에 있는 것으로 크기는 4백40×3백20×1백45cm로 대형이며 방향은 동서에서 북쪽으로 16도 가량 기울어 있다. 이 지석묘의 전체적인 모양은 거북이 앉아 있는 형상인데 북쪽 끝이 남쪽 끝보다 넓고 상부의 경사도 남쪽이 북쪽보다 급하게 만들어져 있다. 개석(蓋石)의 사방에는 치석(治石)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 특히 남쪽은 나중에 깨어진 흔적이 남아있다. 개석 주변에 30~40cm 되는 석괴(石塊)들이 지상에 노출돼 있는데 이것들이 지석묘 하부구조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지석묘가 집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배수구를 이 지석묘 밑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 석괴들은 배수구를 만들 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2) 지석묘(2호)

이 지석묘는 1호 지석묘에서 서쪽으로 약 3m 떨어진 밭둑에 놓여 있다. 크기는 2백30×2백10×60cm며 방향은 동서에서 북으로 15도 가량 기울어 있어 1호 지석묘와 거의 비슷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전체적인 모양은 둥근 형상을 하고 있는데 개석 사방에는 등글게 치석을 한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있다). 개석의 상부에는 3개의 성혈이 있는데 크기는 지름 3~5cm, 길이 3백5cm 정도다. 이 지석묘의 특징은 성혈이 다른 것과 달리 구멍을 수직으로 파들어 갔다는 점이다.

대개의 성혈이 위는 넓게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이나 이 지석묘에 나타난 성혈은 아래와 위의 너비가 똑같은 것인데, 이러한 성혈은 석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리한 금속기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석묘는 놓여 있는 위치로 보아 원래의 장소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지석묘의 밑부분이 도량이기 때문에 하부구조는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3) 지석묘 (3호)

3호 지석묘는 마을의 동북쪽 논 가운데 있는 대형으로 크기는 6백×3백5×1백10cm며 북남에서 동쪽으로 약 35도 기울어 있다.

지석묘의 상부에 잡초들이 무성하여 성혈이 있는지 현재의 상태로는 알 수 없으나 개석의 사방에는 치석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개석의 서쪽면에는 1m가 넘게 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경작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석의 남동쪽 하부에는 개석이 지상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 밑에는 부드러운 흙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4) 지석묘 (4호)

마을의 북쪽 산기슭에 놓여 있는 것으로 크기는 2백25×1백79×30cm며 북남에서 동쪽으로 약 30도 기울어 있다. 이 지석묘는 금암동 지석묘 중에서는 소형에 속하는 것인데 개석의 사방에는 치석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특히 개석의 상부에도 정교하게 다듬은 흔적이 역력하다. 개석의 하부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아 훼손된 흔적으로 보인다.

(5) 지석묘 (5호)

4호 지석묘에서 북으로 약 50m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한 것으로 크기는 2백25×1백36×50cm며 북남에서 동쪽으로 30도 가량 기울어 있다.

이 지석묘는 개석이 절반 가량 떨어져 나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개석은 지금보다 훨씬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지석묘가 산기슭의 경사면에 놓여 있어 원래의 위치에서 아래로 흘러내렸음을 알 수 있다. 개석의 동쪽부분에는 치석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이곳에는 치석을 할 때 쪼은 자국이 남아 있어 치석의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6) 지석묘 (6호)

이 지석묘는 마을 뒤의 구릉상에 위치한 것으로 크기는 1백90×1백20×30cm며 방향은

북남에서 동쪽으로 36도 기울어 있다. 이 지석묘는 하부가 땅 속에 묻혀 있어 지금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컸음을 알 수 있다(이 지석묘도 전체적인 모양이 거북이 형상과 비슷한데 개석의 상부에는 암석의 박리작용에 의해 파충류의 비늘 모양으로 여러 겹 떨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 6호 지석묘의 주변엔 여러 기의 지석묘가 땅 속에 묻혀 있으나 정확한 크기는 정밀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지석묘(7호)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약 5백m 떨어진 농로 옆에 놓여 있다.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지석묘의 크기는 2백90×2백20×70cm로 방향은 북남에서 동쪽으로 36도 기울어 있다(이 지석묘는 개석이 동쪽은 땅에 붙어 있으나 서쪽은 땅에서 떨어져 있어 하부구조는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석의 상부는 등그스름하게 다듬은 흔적이 있고 사방에도 정교하게 치석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8) 지석묘(8호)

이 지석묘는 7호 지석묘에서 서쪽으로 3백m 떨어진 산기슭의 밭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크기는 4백78×3백34×1백30cm며 북남 방향에서 서쪽으로 약 10도 기울어 있다(개석은 화강암으로 서남쪽 부분이 상당 부분 깨어져 없어졌으며 개석의 중간쯤에 후대의 탄흔자국이 있어 훼손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개석의 사방에는 치석을 한 흔적은 있으나 다른 지석묘에 비해 거칠게 다듬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석묘 주변에는 20~30cm 되는 석괴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 지석묘의 하부구조에서 나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석묘

(9) 지석묘 (9호)

8호 지석묘에서 동북쪽으로 약 3백m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한 대형 지석묘로 크기 4백 95×2백30×75cm로 방향은 동서에서 북으로 약 10도 기울어 있다(화강암으로 개석의 상부는 둥글게 다듬어 놓았으며 남북의 끝에는 깨어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석의 하부도 둥글게 다듬어져 있어 지면과 약간 틈이 나 있는데 이곳에도 훼손된 흔적이 남아 있다).

하부의 구조는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먹만한 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하부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9호 지석묘 주변에는 이와 같은 석질의 암석들이 여러 개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지석묘인지는 자세한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외형상으로 보아선 지석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석묘의 암석들이 주위의 산에도 많이 흩어져 있어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한다.

5. 보적사(寶積寺)

지정번호 : 전통사찰 제34호

지정연월일 : 1988년 7월 27일

시대(창건) : 고려 초기 추정

소재지 : 오산시 지곶동

용주사(龍珠寺) 본말사지에 의하

면 보적사는 창건 당시 이 세계 중 생의 질병 치료, 수명 연장, 재화 소멸, 의복·음식 등을 만족케 하고 부처의 행을 닦아 무상보리의 진리를 터득케 한다는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을 정전으로 독산성의 역사와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했으나 1990년 도광정운(道光正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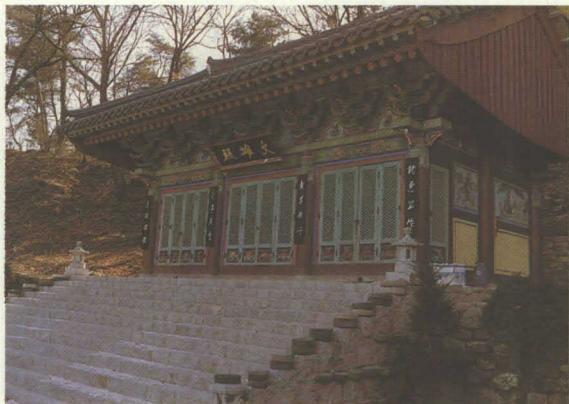
스님의 불사 때 석가여래불을 모

신 정면 3칸, 측면 2칸의 중창정전이 건립되면서 대웅전(大雄殿)으로 명칭이 변경돼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본다. 대웅전 좌우에는 요사채 2동이 있으며 대웅전 정면에 3층 석탑이 조성되어 전통사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 후기의 사찰이다. 호국의 군진으로 이름 난 사적 제140호 독산성 세마대와 자리를 같이 하여 독산 상봉 언저리에 자리잡은 보적사(寶積寺)는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사적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고려 초기 창건으로만 전해올 뿐이다.

독산성은 백제 때 처음 축조된 성으로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이 전라도로부터 2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왜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북상중 이 성에서 머무르는데 3만여 명의 왜적이 포위하고 식량과 식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므로 권율장군의 기지로 말을 끌어다가 쌀을 끼얹어 보이니 멀리서 보기엔 물로 말을 목욕시키고 있는 것처럼 차각하게 되어 왜적은 포위했던 군진(軍陣)을 풀어 퇴각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계속 적의 후미를 공격, 큰 전공을 거두었으며 그해 겨울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변이중(邊以中)으로 하여금 화포를 발명 제작케 하여 행주대첩의 승첩을 얻게 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는 독산성에 세마대를 세우고 당시 석대산으로 불리던 것을 세마산으로



보적사

고쳐 부르고 병기창을 두어 무술을 조련했던 군사적 요충지다. 정조 때는 독산(제마산)을 용릉의 향로봉이라 칭하였고 수원유수가 관할하는 3백여 호의 변화한 촌락이 되었으나 한일합방 후 왜인은 세마대를 파괴하고 주민을 각처로 분산 이주케 하였다.

그러나 1957년에 다시 세마대의 복원과 함께 산상에 연무의 3개 광장도 마련하였다. 위의 상황으로 보아 남한산성의 장경사(長慶寺)처럼 가호를 비는 신심으로 사기 양양에 기여케 했으리라 본다. 1978년에 박월광(朴月光) 스님이 주지로 부임해 사우를 보수했다.

6. 오산시의 유적·유물

1) 외삼미동 지석묘

지정번호 : 오산시 향토유적 제1호

소재지 : 오산시 외삼미동

시대 : 청동기시대

수량 : 2기

숲으로 둘러싸인 구릉에 위치한 2기의 고인돌은 전형적인 북방식인 탁자모양과 남방식인 바둑판의 모양을 하고 있다. 탁자형 고인돌은 크기가 2백60×2백30×90cm로 장축 방향은 남북방향에서 동쪽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고인돌의 규모는 대형은 아니지만 개석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모양이 매우 매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개석의 사방 모서리에는 치석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상부에는 지름 3~5cm, 깊이 2~3cm정도 되는 크고 작은 성혈 15개가 산재하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아주 매끈하고 정성스럽게 다듬어 갈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개석을 받치고 있는 석질은 개석과 같은 화강암인데 동서 고인돌 모두가 바깥 쪽으로 쓰러져 있다.

서쪽 고인돌이 1백80×80×40cm로 반월형이며 동쪽 고인돌은 1백75×75×40cm로 길다란 판석을 약간 다듬어 만들었다. 두 개의 고인돌 중에서 서쪽 고인돌은 반월형으로 정교하게 정성들여 만든데 비해 동지석은 판석을 대강 다듬어 사용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조사된 탁자식 고인돌에서 이러한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탁자식 고인돌과 남쪽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바둑판식 고인돌은 1백70×1백40×46cm로 고인돌이 지상에 드러나 있지 않고 주변이 잡목으로 덮여 있어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개석의 석질이 옆의 탁자식 고인돌과 같고 개석의 상부에 3개의 성

혈이 있는 점으로 보아 고인돌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사방을 치석한 모양도 탁자식 고인돌과 비슷하다. 이 고인돌은 처음부터 고임돌이 없었던 것인지 나중에 고임돌이 훼손되었는지는 지금의 상태로는 알 수 없다.

이 외삼미동의 고인돌은 이곳 주민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고인돌이 있는 장소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어느 곳이나 고인돌이 있는 마을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 숭배사상인 거석기념물 토테미즘이라고 볼 수 있다.

2) 죽미령 유엔군 초전기념비(初戰記念碑)

소재지: 오산시 내삼미동

시대: 전투 1950년 6월 25일 동란중, 기념비건립 1982년 4월 6일

이곳은 1950년 6·25전쟁 때 공산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군 스미스부대와 한국군 제17연대가 연합작전으로 혈전을 전개함으로써 한국동란 초전을 장렬하게 장식한 곳이다. 부지면적 5천평에 높이 19.5m, 동상높이 3.6m의 조형기념물은 3개 진지의 구축을 상징하고 있으며 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국방부 후원으로 이일영 화백이 제작했다. 공사는 경기도가 집행하여 1982년 4월 6일 준공되었다.

비문: 북괴의 이리떼 38선을 넘으니 자유수호 위해 유엔은 일어나다. 폭력
엔 폭력을 다짐하고 굽히 달려온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 앞장서 죽미고개
에 서고 한국군 제17연대 이에 따르니 한·미연합작전의 서막은 열리다.
혈전 6시간15분 피바다 이루고 화선은 낙동강으로 이어지니, 한 품은 고
흔 이곳에 잠드니 혈맹의 우의 어찌 잊으랴.

초전비건립 당시 비문: 1950년 7월 5일 이 자리에서 미 제24보병사단 소
속 제21보병연대 및 제52야포대 A중대로 구성된 스미스전투부대 4백 6
명의 장병이 미합중국 군대와 공산침략군 간의 최초의 전투를 개시했음
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우노라.

○ 죽미령 전투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비와 작전 역량에서 월등히 앞선 인민군은 7월 3일 서울을 완전 점령하고 전쟁 초기의 기선을 제압했다. 이 기세를 몰아 7월 4일 수

원까지 점령, 경부국도를 따라 오산·평택까지 진출하려고 시도했다.

초반 전세가 불리해진 국군은 인민군의 침공방향을 동쪽의 말죽거리~퐁덕천~수원선과 영등포~안양~수원의 2개 축선으로 판단하고, 이곳을 중점적으로 견제하면서 전황에 따라 철수키로 하고 전선을 정비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수원에 마지막 엄호부대로 제1사단과 제3사단을 지명하고 아군이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저지진지를 확보도록 하였다.

인민군은 7월 3일 오전 6시를 기해 풍덕천과 안양 정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고 경부국도를 따라 남하하였다. 인민군은 제4사단의 선두부대로 전차 12대를 앞세우고 안양 부근의 국군진지를 거쳐 후방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전세가 급박해지자 국군은 각 진지에서 철수에 들어가게 됐고 육군본부도 이날 오전 10시 수원을 떠나 평택으로 이동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 24사단 21연대 1대대(대대장 스미스 중령)는 일본 구마모토에서 7월 1일 이다스케를 거쳐 당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다스케에서 미 24사단장 딘 소장으로부터 ‘가능한 한 북쪽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



구 초전기념탑



침전 16개국 국기게양대

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7월 2일 대전에 도착하였다.

스미스 중령은 지형 정찰차 대전에서 오산까지 지프로 달려 죽미령까지 정찰을 끝내고 서정리 부근에서 국군 제17연대와 부대배치 문제를 협의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다음날 스미스부대는 열차편으로 북상하여 안성과 평택 부근에 1개 중대씩을 배치하고 지휘소는 평택 국도변에 자리잡았다.

한편, 스미스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을 출항한 미 24사단 예하 제52포병대대 A포대는 7월 2일 부산에 상륙한 다음 3일 오후 출발하여 다음날 평택에 이르러 스미스 중령의 지휘하에 들어갔다.

스미스부대의 진지배치가 마무리되었으나 미 제34연대가 이곳에 곧 도착하여 진지를 인수할 것이 예상되므로 스미스부대는 오산 북쪽으로 전진 배치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스미스 중령은 오산 북쪽을 정찰하고 죽미령에 진지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7월 5일 오전 3시께 죽미령에 진지를 구축했다. 이때 스미스부대는 제52포병대대를 포함해 보병사병 3백89명, 장교 17명, 포병사병 1백25명, 장교 9명 등 총 5백40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있었다.

오전 7시50분에 8대의 인민군 전차가 남하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제1단은 8시16분에 인민군의 전차를 향해 발사되었다. 전방의 관측장교는 신속히 탄착을 조정하여 전차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인민군 전차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전진해 오고 있었다. 인민군의 전차부대가 보병진지 7백m에 접근하자 2문의 무반동총으로 사격을 가하였다. 도로연변의 로켓포를 지휘하던 코너 소위는 15m 거리에서 철갑이 약한 인민군 전차 후면에 약 20발을 가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1백5m곡사포가 대전차포탄으로 직접 조준사격을 하고 서야 2대를 정지시켰다.

파괴된 2대의 전차는 후속하는 전차를 위해 도로에서 비켜섰고, 2명의 인민군병사가 포탑뚜껑을 열고 손을 들고 나오더니 세번째 병사가 따발총으로 미군 기관총 부사수들을 사살하였다. 이 2명의 미군 기관총사수가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전사한 미군 보병이었다. 인민군 3명은 모두 사살되었다. 6발밖에 없던 대전차포탄도 소모되어 인민군의 전차에는 무용한 고폭탄만이 남아 있었다.

인민군 3번 전차의 사격을 받아 미군 야포 1문이 파괴되고 병사 1명이 부상했다. 인민군 전차대는 4대가 1단이 되어 먼저 8대가 왔다. 그들은 미군 보병진지를 통과할 때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전진 남하하였는데 모두 33대의 전차가 지나갔다. 마지막 전차가 보병

진지를 통과한 것은 오전 9시였는데 약 한 시간 후 선두 전차는 안부에 도착하였다. 이때 인민군 전차의 사격으로 미군은 20여 명이 사상되었고 통신장비는 완전히 두절되었다.

야포진지에 침투한 인민군 전차는 미군의 사격에도 정지하지 않고 돌파하여 지나갔다. 3개의 로켓포조는 도로 연변에 배치되었다. 인민군 전차가 보병진지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은 폐리 중령과 에바솔 중사는 2개의 로켓포로 1번 전차에 사격을 가해 전차포탑에 명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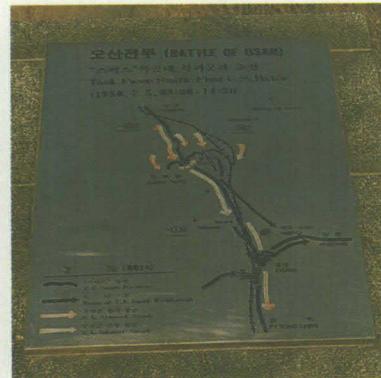
한 대는 미군의 1백5mm 포탄에 맞아 무한궤도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다른 전차는 계속하여 통과하고 있었다. 교전이 끝나고 인민군 전차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약 10분 후에 두번째의 전차행렬이 출현하여 미군 병사들은 극도로 긴장하였다. 미 포병대의 병사들은 인민군 전차가 접근하자 모두 도망가고, 장교들이 포탄을 장전하였다. 1백5m 곡사포로 사격을 가했지만 그 중 한 대만이 궤도에 명중되어 포진지 정면에 정지하였다. 최종 전차가 10시15분에 포진지를 통과하였다. 인민군 전차는 오산으로 전진하였는데 1백5mm 곡사포와 2.36인치 로켓포에 의해 1대가 파괴, 1대는 연소되었고 포진지 정면에서 2대가 정지되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3대는 계속 오산쪽으로 내려갔다.

스미스부대는 인민군 전차를 방어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인민군 전차부대가 보병·포병진지를 통과해 오산을 지나간 후 전선은 다시 고요해졌다. 전방 수원에도 이렇다 할 정후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스미스 중령은 인민군의 대부대가 곧 접근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인민군 전차가 지나간 후 1시간만에 스미스 중령은 관측소에서 인민군이 수원에서 도로를 따라 남하해 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인민군 제4사단의 제16, 18연대였다.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전투를 목전에 둔 미군 병사들은 대부대의 이동을 보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인민군의 차량중대까지 가까운 거리에 도달하자 스미스 중령은 사격개시 명령을 내렸



현 초전기념탑



작전지도

다. 3대의 엄호 선두 전차는 미군진지 전방 2백m까지 육박하여 포와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었고 인민군이 도로의 동측방 능선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우측방 고지에서 인민군 기관총으로 많은 미군들이 살상되었다. 오후 2시30분께 스미스 중령은 철수를 결심하였다.

수많은 인민군이 이미 양 측방을 포위하고 후방에도 침투하였으며 막강한 인민군 예비대는 수원으로 가는 도로를 차단하고 말았다. 반면 스미스부대는 탄약과 보급품을 소진하였다. 계속 내린 비로 인한 기상불순으로 공중지원도 여의치 못하였고 도로는 엉망진창이었다. 스미스부대는 철수작전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스미스 중령의 철수명령을 받은 포병도 곧 이동 준비를 하였다. 스미스와 페리 중령은 인민군 전차가 평택으로 가는 주도로를 따라 갔으리라 예상하고 오산 남단에서 안성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다. 협준한 오산 남방의 도로를 따라 철수하는 도중 갑자기 나타난 인민군 전차 3대를 발견하고 오산 북단으로 나와 동진하여 안성으로 향하였다. 철수하는 차량중대는 고지에서 인민군의 사격을 받고 많은 피해를 보면서 철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1백여명만이 안성에 도착하였다.

다음날인 7월 6일 아침 스미스부대는 천안에 집결했다. 거기서 인원을 파악하니 1백85명이었고 뒤따라온 C중대 일행은 65명이었다. 총생존자의 병력은 3백50명이 된 것이다. 1백50명이 전사하고 또는 부상·실종되었다. 낙오자들은 평택·천안·대전 등지로 빠져나왔다. 인민군 4사단에 배속된 부대들은 7월 5일 오산에서 42명이 죽고 85명이 부상했다.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에서 스미스 중령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들은 소위 군사적인 2중 봉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 부대의 양익 주변으로 넓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께 그들은 후미의 간격을 좁히기 시작했고 그들 중 일부는 후미에서 우리에게 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중대장들에게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전 11시30분께 포병대와 통신이 끊겼다. 우리는 무반동총도 없다. 우리는 기관총도 없다. 다만 2개의 기관총 끼움쇠와 각각의 총에 장전할 평균 16발의 실탄밖에 없다. 사실 싸울 만한 효과있는 무기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철수명령을 내렸으나 우리는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하기 어려웠기에 철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부하들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미군과 북한군의 최초 전투에서 미군은 참패하고 말았지만 인민군의 남하를 약 6시간 30분 저지시켜 주었다.

이 전투를 맥아더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봤다. 즉, 미 지상군의 참전을 예기치 않았

던 인민군이 미군의 참전을 직접 보게 되면 소련전법에 따라 일단 전선을 재정비할 것이고 그럴 경우 미군의 주력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맥아더는 이 작전이 바로 스미스부대의 희생으로 이뤄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리지웨이 장군의 회고록에 의하면 맥아더는 침공군의 공세를 잘못 판단하고 첫 지상군 투입 규모로 1개 연대를 합참본부에 신청했다면서 인민군 10개 정예사단 앞에 1개 대대를 투입하는 것은 맥아더의 지나친 오만이라고 했다.

결국 이 작전에서 미군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강력한 무력시위를 하려 했던 미국의 판단은 인민군의 공격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단순한 정찰활동만으로 인민군을 저지할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전술판단은 사라지고 미군의 정규사단이 계속 참전하게 되었다.

스미스부대와 인민군이 격전을 치른 죽미고개 마루에 1955년 7월 5일 미군 24사단이 탑을 건립하고 추도식을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 미군 24사단이 유럽으로 전속되어 관리 할 수 없게 되자 지역유지인 고 유희훈 선생에 의해 초전비가 관리되고 매년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1966년 유희훈 선생이 초대 화성문화원장직을 맡게 되어 이후 화성문화원에서 관리 및 행사가 이루어졌다.

당시의 초전비가 협소해 행사를 치르기 불편하고, 전적지로서 효용가치가 떨어져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지로 가꾸기 위한 노력으로 새 초전비 건립이 화성문화원(당시 원장 김덕일)에 의해 추진되어 구 초전비 맞은 편에 1982년 현 초전비의 준공을 보게 되었고 초전기념 및 추도식도 현 초전비에서 처리하게 됐다. 1994년에 오산문화원이 개원되어 초전기념식 및 전몰장병 추도식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3) 오산의 문현서원 (文獻書院)

소재지 : 오산시 내삼미동

시대 : 1985년

규모 : 영정각 정면 3칸, 측면 2칸

문현서원은 최충선생을 중앙에, 우측에 문화공 유선(惟善), 좌측에 문장공 유길(惟吉)을 봉안한 영정각과 강당을 겹한 2층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영정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콘크리트 구조에 청기와를 얹은 팔작지붕의 건물로 1991년 건립되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을 크게 일으킨 대학자나 충성을 다하고 절개를 지키다

돌아간 어른의 영정·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받드는 한편, 선비들이나 서생들이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곳을 서원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서원은 글을 배우고 강론하는 사학기관인 동시에 그 서원에 모신 어른의 제사를 받드는 사우(祠宇)이기도 한 것이다. 문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원이 처음 세워진 것

은 중종 38년(1543)이며, 이때를 전후하여 동방성리학의 조종인 동시에 벼슬이 인신(人臣)의 극에 달했던 문현공(文憲公) 선생을 모신 문현서원(文憲書院)이 황해도 해주에 세워졌던 것이다.

처음에 최충선생을 모신 사당(祠堂)은 공자묘(孔子廟)가 있는 서쪽에 있었으나 조선조 명종 7년(1550) 황해도 관찰사 주세봉(周世鵬)이 적지를 물색, 구제학당을 모방한 훌륭한 서원을 건립하고 이곳으로 옮겨 모셨다고 한다. 특히 주세봉 관찰사는 최충선생의 훌륭한 업적과 그 덕망을 들어 나라에 액호(현관에 붙인 이름)를 내려주기를 청하였던 바, 당시 선조는 이를 특별히 허락하는 한편, 구경(九經)과 성리학(性理學)에 관한 많은 서적과 정(程), 주자(朱子)의 저서들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문현서원에 소속시킬 토지도 상당히 마련하여 주었다.

1571년(선조 5)에는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박승임과 해주목사 한성원이 문현서원을 석동 백운봉 아래로 옮겨 세우고 이율곡(李栗谷)이 석담(石潭)에 은퇴할 때에 원장이 되어 학규(學規)를 새로 만들고 이를 벽에 걸어 놓기도 하였다.

1673년(현종 14)에는 새로 부임한 황해도 관찰사 윤곡(尹谷)이 나라에 청원하여 산에서 재목을 베어다가 문현서원을 중수하였고, 1685년에는 문중의 후손인 석정이 서원에 봉안할 문현공·문화공(公의 長子 惟善) 두 분의 화상(영정)을 다시 모사하기도 하였다.

그 뒤에도 새로 부임해 오는 도관찰사마다 경비를 보조하여 문현서원의 수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1862년(철종 13)에는 후손 종형(琮炯)과 재규(載奎)가 서원건물이 낡아 손상되는 것을 염려해 비석을 세워 사실을 기술하여 두기로 의논하고 경비를 염출, 비석을 세웠는데



문현서원

비명은 당시의 규장각 직제학 이유원(李裕元)이 지었다고 한다.

이렇듯 해주의 문현서원을 그곳에 모신 최충선생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로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관찰사(도지사)나 목사들이 정성을 다하여 보수 관리해 왔으며 1945년 남북이 분단되는 시점까지 온존하게 보존되었다. 현재 남한 땅에는 최충선생을 모신 서원이 두 곳(洪州의 魯東書院, 康津의 明谷書院)이 있고, 영당(影堂)이 여러 곳에 있으나 그래도 본거가 되는 서원은 해주(海州)의 문현서원이기 때문에 이를 오산(烏山)에다 다시 건립하게 되었다.

(1) 문현서원을 오산에 세운 배경

남한 땅의 20만 해주 최씨(海州 崔氏) 종인들은 고려조의 명재상이자 해동공자(海東孔子)로 추앙받고 있는 해주 최씨 선조 문현공(文憲公) 최충(崔沖)선생을 모신 문현서원(文憲書院)이 북한해주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하고 남한의 적당한 곳에다 다시 창건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의논하던 차에 지난 1985년 선생의 탄신 1천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한국의 역사학계 최고 권위자를 총망라한 학술심포지엄의 개최, 연구논총의 발간, 대동보의 편찬 등)을 성공리에 마무리짓고 곧이어 문현서원의 창건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여러모로 입지조건이 좋은 경기도 오산미동 753-2에다 부지를 조성하고 서원건립에 착수,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 영정각과 문현서원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한편, 오산시에 문현서원을 건립하게 된 경위와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오산시 내삼미동은 최충선생과 여러 의미에서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문현서원이 건립된 일대는 선생의 14세손이자 조선조의 대학자 최만리(崔萬理)선생의 증손자인 최선(崔善)의 묘소가 있는 종산이며, 특히 오산시의 접근거리인 성환에는 국보 제7호로 지정되어 있는 최충선생의 비문이 새겨진 사적비(事蹟碑) 봉선홍경사비갈(奉先弘慶寺碑碣)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고 또 인접 안성(安城)에는 선생을 봉향하고 있던 문현서원과 조선조의 명재상(영의정)인 민제공 최규서(民齋公 崔奎瑞)선생(최충선생의 23세손) 산소와 어서각(御書閣) 등 유적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 해주나 고려의 도성인 송도 이외의 남한 땅에는 이렇다할 만한 연고가 없는 최충선생에 있어 오산은 여러모로 연고가 있는 입지라고 판단되어 이곳에 문현서원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해주 최씨 문중에서는 서원을 예로부터의 전통을 살려 각종 수련회 등 교육을 위

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각계에 제공할 뜻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서원 강당에는 최충선생의 일대기를 이동구 화가가 벽화로 그린 것을 후손 최우의 해설로 전시한 10폭의 그림이 있어 이곳을 찾는 참배 및 관람객에게 좋은 교육자료가 되고 있다. 벽화의 내용은 출생, 장원급제, 출장입상, 짐무광경, 계이자시, 궤장하사, 연회장 참석광경, 구재, 기념비, 문현서원 전경 순인데 해설은 다음과 같다.

〈출생〉

예로부터 거룩한 어른들의 출생에는 으레 설화가 따른다.

문현공은 태어날 때에도 나라의 학문이나 예술이 크게 일어나는 운세를 상징한다는 규성(규성: 이십팔수의 열다섯번째 별)이 하늘에 엉기여 해주 최씨의 시조인 온(溫) 집 쪽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문현공이 태어난 해는 986년(고려사에 근거함)이며 태어난 곳은 황해도 대령군(지금의 황해도 해주시)인데 아버님되는 온(溫) 시조는 집안도 부유한 테다 벼슬도 높아 고을에서 아주 명망이 높은 분이었다고 한다.

〈장원급제〉

문현공은 재주·슬기·풍채 등이 아주 빼어난 어른이었다. 거기마다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장래가 크게 기대되는 인물로 여겼다. 잣 스무살이 되던 해에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문과에서 과거등급의 가장 으뜸인 갑과(甲科) 수석(장원)으로 합격(급제)하였다. 그리하여 순탄하게 벼슬길에 오르고, 목종·현종·덕종·정종·문종까지 다섯 분의 임금님을 섬기면서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벼슬인 문하시중(門下侍中·지금의 총리)을 지내고 또 여러 공신칭호(功臣稱號·나라를 위해 공적이 많은 신하에게 특별히 내리는 칭호)를 받았다.

〈출장입상〉

문관으로서의 높은 학식과 경륜에다 식관으로서의 군사지식까지 고루 갖춘 문현공은 나가서는 장수(將帥: 군대의 총지휘관)이고 들어와서는 재상이었다.

임금님께서는 당시 북쪽 변방을 어지럽히는 여진족을 막기 위해 문현공이 56세 되던 해에 판서북로병마사(判西北路兵馬使)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기면서 “북쪽 변방의 경비를 단단히 하기 위해 성(城)을 넓히는 등 임무를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때 문현공은 성과 보(堡: 적을 막기 위한 진지)를 14개소나 새로 구축했다.

〈집무광경〉

타고난 성품이 근면 성실했던 문현공은 오로지 나라 다스리는 일에만 열중했다. 다시 말해 사사로운 일은 멀리 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일에만 신명을 바쳤다.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시 시좌객(示座客)은 나라 일에 바쁠 때의 심경을 읊은 것이다.

〈시좌객〉

물 가운데 정자 시원한 대청이 나를 부르는데도 문서더미 속에 쌓여 세월을 보내는구나
붉은 앵두 자주빛 죽순(대나무순) 철이 지나려 하는데
붉은 무궁화와 석류의 모양은 역시 꼽기만 하구나
(이하는 생략함)

〈계이자시(戒二子詩)〉

문현공은 유선(벼슬이 지금의 총리)·유길(벼슬이 역시 재상) 두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에 대한 교육은 무척 엄격하였다. 특히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두 아들을 훈계하는 글 「계이자시」는 후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좋은 물건은 없으나
오직 값진 보배로 간직해 내려오는 것이 있다
문장을 비단으로 여겼고
덕행을 곧 옥으로 생각했다
오늘날 서로에게 이르는 말을
부디 뒷날에도 잊지를 말아라
그러면 나라를 위해 귀히 쓰이는 인재가 되고
대대로 더욱 더 번영할 것이다.

〈궤장하사(几杖下賜)〉

문현공은 춘추가 70세가 되던 해에 연세가 많음을 이유로 임금님께 벼슬길에서 물러나겠다고 주청하였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시중 최충은 이 나라 제일 가는 유학의 종장(宗長)이요, 덕망가다. 비록 늙었다고 물러나기를 청하나 계속 나라의 정사를 맡아 주어 야겠다”고 하시면서 팔걸이 의자와 지팡이를 친히 내려 주었다.

그리고 최고의 공신 칭호인 추충찬도협모동덕윤리공신(推忠贊道協謨同德允理功臣) 칭호와 개부의동삼사수태사문하시중상주국(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中上柱國)이라는 인신(人臣)으로서는 가장 높은 벼슬을 더해 주셨다. 결국 문현공은 능력과 인품이 뛰어나 임금님의 두터운 신임(信任)을 받았던 것이다.

〈연회장 참석 광경〉

고려조 전반기에 있어 해주 최씨는 그야말로 명문 세도가문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다시 말해 문현공이래 조상들이 대를 이어 높은 벼슬길에 올랐으며, 나라의 재상자리를 맡은 조상만도 10여분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예찬하기도 하였다. 특히 예찬한 글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가 전해지고 있다. 즉, 어느날 임금님이 나라의 원로들을 위해 베푸시는 연회장에 두 아들의 부축을 받고 참석하는 문현공의 모습을 보고 당시의 한림학사 김행경은

상서령(上書令)이 중서령(中書令)을 모시고
을장원(乙壯元)이 갑장원(甲壯元)을 부축하셨네

〈구재(九齋)〉

문현공이 76세 되던 해에 중서령을 마지막으로 스스로 벼슬길에서 물러나고 나라의 인재를 기르는 교육사업에 힘을 쏟았다. 즉, 자하동에다 구재학당(九齋學堂·아홉 채의 학당)에다 아홉 과정의 교과를 설치하였다)을 세우고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배워 익히게 하는 한편, 과거에 오를 수 있는 학문을 가르쳤다.

한편, 당시의 교육기관은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립(國立)만 있었으나 구재학당이 처음으로 사립으로 세워졌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교육기관이 되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문현공을 해동의 공자(海東孔子)로 일컬고 길이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기념비〉

문현서원을 이곳 오산에 다시 세우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다. 기념비의 비문은 우리나라 당대의 대학자이며, 문현공의 공적을 기념하는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계 인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해동공자 문현공 최충선생기념사업회의 회장인 이승녕박사가 짓고 비문의 글씨는 서예계의 중진인 죽봉 황성현 선생이 썼다.

한편, 기념비의 규모는 대한민국 국보 제7호인 충남 성환에 있는 봉선홍경사비갈(문현

공이 비문을 지은 것으로 유명함)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문현서원전경〉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나라의 학문을 크게 일으킨 대학자나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하고 절개를 지키다 돌아가신 어른의 영정·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한편, 선비들이나 학생들이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일종의 교육기관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동방의 대학자인 문현공을 모신 서원도 나라 안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현서원은 북한땅인 황해도 해주에 있다.

그러므로 남한의 후손들이 뜻을 모아 문현서원을 이곳 오산에다 다시 세웠으며 원식(元植) 대종회장(32세손·좌랑공파)이 서원건립 추진위원장을 겸임하고, 3년여에 걸쳐 역사를 마무리하였다.

4) 이상재(李尙載) 선생 충신 정려문(旌閭門)

소재지: 오산시 서동 산 66-1

시대: 1815년(순종 15)

규모: 정면 2칸, 측면 1칸 맞배지붕에 벽돌담장의 방풍판 설치

이 정려각은 덤벙주초 위에 각주를 세웠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로 전면 우측은 이상재 선생 충신 정려문과 송면재(宋冕載) 선생이 지은 정려기 현판 1좌가 보존되어 있다.

이 정려각은 좌측에 협간을 두어 선생의 신위를 모신 감실이 있고 감실입구는 판장문으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한식 골기와를 엮은 맞배지붕이며 겹쳐마로 백골집에다 좌우에 방풍판이 있다.

건축양식으로 볼 때 정려문에 협간을 둔 정려각은 흔치 않은 조선 후기 건축물로 지방문화 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정려문은 「忠臣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通德郎金井察訪兼承文院著作李尙載之門 崇禎紀元再甲申酉 特命加贈」으로 되어 있다. 충신정문은 1704년(숙종 30)에 왕의 특명에 의해 추가로 관직을 증직하고 내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충신 이상재선생은 부평 이씨(富平李氏)다. 자(字)는 문거(文擧)라 하며 광해군(光海君)과 동서간인 이덕일(李德一)의 아들이다 15~16세에 뛰어난 큰 선비가 되었다.

1630년(인조 11)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633년(인조 11) 명경(明經)으로 대과에 급제하니 당시 나이 27세였다.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가 저작(著作)으로 있을 때 중

국 사신 강학사(姜學士)가 선생의 의젓한 용모와 담담한 기상을 보고 더욱 존경하여 힘써 선생의 시(詩)를 구해 황화집(皇華集·청나라 왕의 문집)에 실려 있다. 선생은 항상 강직하여 출세를 위해 아부하는 일이 없었다. 금정찰방(金井察訪)으로 있을 때인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났다.

청태종(清太宗)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내려 왔다. 이때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가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쳐내려 오는 청군을 막으려고 광주(廣州)에 이르렀을 때 이상재선생이 활을 잘 쏘는 신기한 재주가 있음을 알고 그를 종사관(부관)으로 삼았던 것이다. 정세규는 이상재 선생의 사기가 충천하고 또한 충성심이 강함을 인정하여 신임하고 군(軍)의 기밀일체(機密一切)를 그에게 위임했다.

이상재 선생이 용인(龍仁)을 지나 혐천(險川) 땅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다. 그때였다. 불시에 야습을 받아 적군을 만나니 모두 겁을 내고 두려워하며 선봉이 무너지고 후진장군 최진립(崔震立)이 전사했고 이상재 선생이 급히 대장막사에 달려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정세규는 말하기를 피하자 했다.

이상재 선생이 이 말을 듣고 분연히 말하기를 어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신하는 마땅히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이 직분입니다. 하고 물러나 인신(印信)·관인(官印)을 마졸(馬卒)에게 주며 이것이 나라의 공기이니 네가 가지고 돌아가라 했다. 잠시 전에 수장(首將)이 또 적에게 패하여 겨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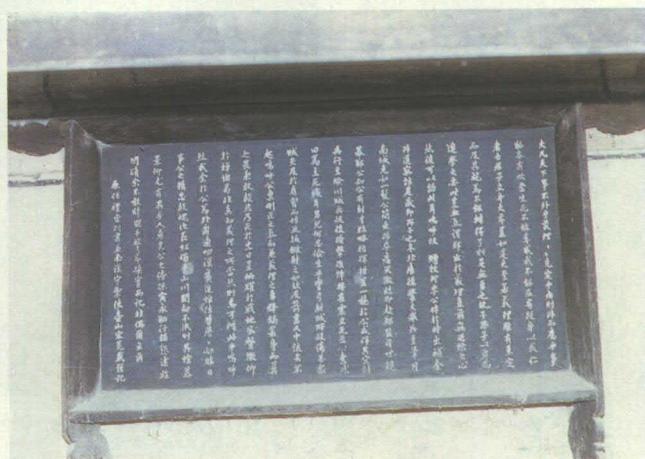
이상재 묘



정문



정문현판



전기

우 몸만 탈출하니 패한 군사들이 적의 진중으로 투항해 들어가는 자 수백이었다. 이상재 선생은 사나운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기를 ‘사나이가 죽을지언정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도모하여 몸을 보존하려는가’하니 도망가던 군사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선생은 언덕 위 양식더미 위에 올라가 활을 당겨 적을 쏘니 죽거나 상하는 자가 많으므로 서로 경계하며 가까이 오지 못했다. 날아오는 화살이 연이어 어깨와 가슴에 맞았으나 선생은 태연히 화살을 뽑고 전과 같이 활을 당기었다. 그러나 화살은 떨어지고 힘은 다했는데 다시 적의 화살에 맞으니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다.

이상재 선생은 최후까지 용감하게 싸운 충신이었다. 나라에서는 충성을 높이 치하(致賀)하고 임금께서 특명으로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겸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으로 중직했다. 뒤에 통정대부(通政大夫)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지제교(知製教)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에 증직(贈職)하고 또 특명으로 충신정려(忠臣旌閭) 하였다. 정문(旌門)과 묘는 오산시 서동(草坪洞) 산 66-1에 있다. 묘역은 매봉산 남향능선 하단에 위치한 부평 이씨 선영 상단에 있다. 상석 1기, 망주석 2기, 묘비 1기와 1996년 12월에 세운 시비(詩碑)가 있다.

한편, 이상재 선생 정려각은 1815년(순종 15)에 오산시 서동 산 66에 세워졌다.

5) 홍수주(洪受疇) 선생의 묘

소재지: 오산시 세교동

시대: 1704년(숙종 30)

홍수주(洪受疇) 선생은 1642년(인조 20)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서 경기도 관찰사 홍명원(호, 海峯)의 후손으로 황해도 관찰사 홍처윤(호, 安分齋)의 넷째 아들로 출생하여 1704년(숙종 30)에 사망한 사대부 문인화가다.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자(字)는 구신(九信)이고, 호(號)는 호은(壺隱) 또는 호곡(壺谷)이다. 선생은 7세 때 어휘를 연결하여 글을 지어 주위를 놀라게 하였고, 20세에 이르러서는 시문(詩文)이 능하여 이름을 날리기



홍수주의 묘 입구 안내비

시작하였다.

선생은 40세가 되는 1682년(숙종 8)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정언현납(正言獻納) 등을 거쳐 예조좌랑을 지내고 1684년 장령으로 재직 중 당파 싸움에 휘말려 서인(西人)으로서 파직되어 경흥·덕원·철원 등지로 유배되었다.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풀려나와 교리(校理)로 재등용된 뒤 밀양과 경원의 부사를 역임하다가 1695년에는 동지부사(冬至文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1696년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여 어려운 국사를 능숙한 문장과 글씨로 처리, 청나라 사신들의 격찬을 받기도 하였다. 이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고 다음해인 1700년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거쳐 1701년 예조참의, 1702년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1704년 도승지를 거쳐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선생은 글씨, 특히 전서(篆書)를 잘 썼다. 증승정대부의정부 좌찬성(贈崇政大夫議政府 左贊成)에 가작되었다. 선생의 아버지 처윤(處尹)은 속부와 더불어 4인 선발 문과(文科)에 형제가 급제하여 재상반열(宰相班列)에 이바지하였으며, 할아버지 명원(命元)은 문과에 급제한 후 황해도 감사로 삼대(三代)가 감사의 집안으로 각광받았고, 외할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한 후 승지(承旨)를 역임한 양주(楊州)의 조유도(趙有道)이고 장인은 고성(固城) 이씨의 이건(李建)이다. 조부와 부의 묘역은 현재 안산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선생의 묘지도 조부묘역 인근이 있으나 안산시의 공업단지에 수용돼 1979년 9월 오산시 세교동에 후손들에 의하여 천장(遷葬)되었다.

선생의 묘지를 옮기기 위해 묘소를 개광(開擴)하여 보니 비단 관복 3착을 수의로 착용한 채 매장품으로 발견되었는데 2백80여 년이 지나 웃이 너무 삭아 건지지 못해 안타깝기 한이 없었다. 그러나 전후 배도(前後 背圖) 한 관복의 흥배만은 유물로 수습했다.

선생은 글씨와 그림에 매우 능하였는데 그림은 매화·죽·포도를 특히 잘 그렸다. 현재 남아 있는 선생의 작품으로는 묵포도화(墨葡萄畫)와 묵매화도(墨梅花圖)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글씨로는 태종대왕현릉신도비(太宗大王獻陵神道碑)(서울 세곡동 소재)가 있는데 서화(書畫) 양면에 각각 일가를 이루었다.

선생에 관한 문헌으로는 숙종실록(肅宗實錄)을 비롯하여 호은집(壺隱集) 2권과 흥계국(洪桂國)의 지옹집(之翁集), 권이진(權以鎮)의 유매당집(有梅堂集), 동국문현록(東國文獻錄) 등이 있다. 이들 기록에는 그림과 관련된 일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선생이 취중에 선생의 따님이 남의 붉은 치마를 빌려 입었다가 간장을 엎질러 더럽히게 되자 몹시 걱정하는 것을 보고 치마의 얼룩 위에 짙은 포도그림을 그려 저자에 나가 팔아 그 돈으로 청홍비단 몇 필을 끊어 딸에게 주니 그 따님이 대단히 기뻐하였다는 일화가 실려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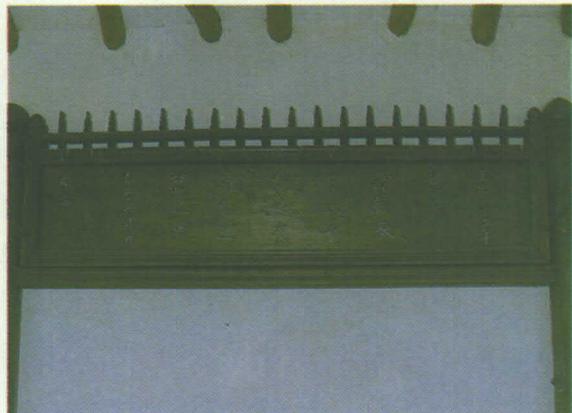
6) 최정린(崔廷麟) 선생 효자정문(孝子旌門)

소재지: 오산시 두곡동

시대: 1825년(순조 25)

규모: 정면 1칸, 측면 1칸 한식골기와 맞배지붕

최정린(崔廷麟) 선생의 효자각(孝子閣)에는 1825년(순조 25) 5월에 내린 효자증봉조대부동몽교관최공정린지려(孝子贈奉朝大夫童蒙教官崔公廷麟之間)의 정려문(旌閭門)이 봉안돼 있다. 공의 휘(諱)는 정린, 자(字)는 성서, 호(號)는 탑서재(塔西齋)이며, 수성(隋城) 사람이다.



최정린의 효자문

수성 최씨는 고려 때 수성백(水城伯)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부터 훌륭한 분을 많이 배출하였다. 원개(元凱)는 호를 봉암이라고 하여 덕행과 청절로 저명하였으며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는 유림(有臨)이라는 분이 있어 적개공신으로 수성군 한양공에 봉해졌으며 윤신은 집의(執義)요, 정숙은 판관(判官)이었다.

선생의 부친 진복(進福)은 자질과 품격이 단결(端潔)하여 세속에 매이지 않는 선비로 제가(濟家)에도 법도(法度)가 있다.

모친은 밀양 박씨로 천성이 어질고 후덕하여 시부모를 섬김에 있어 효를 다하였고 친척들을 온의로서 대우하였으며 또한 여공(女工)에 있어서도 역시 정교하고 재능이 있는 부인으로서 군자의 지행(志行)이 있었다.

선생은 1760년(영조 36) 11월 11일 수원 초평 두곡(지금의 오산시 두곡1동)의 자택에서 탄생하였다. 공에게 먼저 형이 있어 형용이 단정하고 특이하게 생겨 범상한 아이와 달랐으나 불행히도 돌도 되기 전에 일찍 돌아갔다. 모친께서 통석(通惜)하기 그지없는 중 수삭이 지나 꿈에 돌아간 형이 묻힌 곳에서 홀연히 회생하여 땅에서 나오므로 껴안고 집에 돌아와 기뻐 춤을 추다가 꿈을 깨니 마음이 심히 괴이하였다.

이달부터 임신되어 공을 낳으니 형용이 과연 그 형과 같았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효성스러워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는 것도 잊어 버리고 부모님께 공양하였으며 늘 조모님 곁

에 모시고 밥을 먹으면서 조모님이 남긴 반찬을 주시면 반드시 이를 어머니께 갔다 드렸으며 어머니께서 혹시 되돌려 주시면 굳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집살림이 평소 청빈하였으며 어머니께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을 보고 본받았으며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께 드리기도 하였다. 어머니께서 ‘너는 어찌하여 배고픈 것을 참고 나를 공양하느냐’고 말씀하시면 대하여 말하기를 ‘어머니 역시 어찌하여 배고프신 것을 참으시고 할머니를 공양하십니까’하고 말하였다.

선생의 나이 10세에 부친께서 칼에 염지손가락을 다쳤는데 백약이 무효하므로 선생이 사람들에게 널리 무슨 좋은 약이 있나 하고 물은 즉,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혈갈(血竭)이라고 하는 약이 있다고는 하나 잘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억지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필시 사람의 피를 말려 만든 것이리라 하므로 공이 방으로 몰래 들어가 허벅다리를 찔러 피를 내어 이를 불에 말려 다친 곳에 붙여 드린 뒤에 효험이 있어 완치되었다. 부친께서는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고 늘 그 손가락을 들고 이것은 우리 아이의 효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경자년 가을에 모친께서 분만으로 인한 혈허병(血虛病)을 앓게 되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께서는 목욕하고 신에게 기도를 드림은 물론 하늘을 향해 울면서 호소하기도 하였다. 어느 의원이 말하기를 가물치가 제일 좋다고 하나 때마침 깊은 겨울이라 물은 단단히 얼어붙었으나 선생은 곧 석천(石川)의 옆으로 가서 얼음을 깨니 가물치가 틈에서 뛰어나와 이를 얻어다가 모친께 달여 드린 후 과연 효험이 있어 완치되었다.

또한 부친께서는 평소 해소병이 있어 기침·가래가 심할 때가 있었으므로 공은 옆에 모시고 있다가 많이 가라앉은 후에라야 물러났으며 밤마다 이렇게 하였다.

더욱이 부모에게 순응하고 말씀에는 반드시 복종하였다. 평소 우의를 지키며 일찍이 엄격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 양친 곁에 있으면 유순하고 온화한 몸가짐을 지켰으며 어른을 모시는 예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예절 등을 실천하였다. 선생은 스스로 어려서 글을 좋아하여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남의 권유나 독촉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 향학(向學)의 열은 천성(天性)과 같았으며 또한 재능이 뛰어나 불과 수년에 능히 문리(文理)를 깨우쳤다. 공을 가르친 선생은 심히 이를 기특히 생각하여 큰 학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친척 중에 궁색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택(田宅)을 사주어 살게 했으며 일찍이 부모를 잃고 결혼도 못한 사람에게는 결혼을 주선해 주며, 또한 돌볼 사람이 없어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양식을 도와주는 등 성심껏 실행함에 많은 사람이 감동하였으며 인근 인척,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존경하고 공경하였다.

형제 7인이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화목하였음은 모두 그의 화도력(化導力)의 결과였다. 선조의 제삿날에는 깨끗이 집안 모두를 청소하고 제기를 닦으며 모든 준비를 손수하였으며, 매일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며 물러나서는 여러 형제들을 불러 글도 가르치고 도박을 하지 않도록 타이르며 무당을 요망하다고 하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겸소한 생활로 일관했으며 매년 초하루에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 부모님께 절을 하며 여러 동생들에게 예를 다할 것을 타일렀다.

혹은 쟁송(爭訟) 사건이 있으면 공에게 가서 먼저 판별해 달라고 하여 관에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으며 학식있는 사람들은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지극히 가난하여 부모님 돌아간 후에 염습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염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며 이웃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곡하게 타일러 감화시키며 그 부모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크게 칭찬하여 주며 미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논밭을 돌볼 때에도 타인의 논밭에 이상이 생긴 것이 보이면 이를 고쳐주어 인근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최모씨가 들에 나가면 우리는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1799년(정조 23) 8월 5일 40세로 졸하니 이웃 주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진 어른께서 돌아가셨으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걱정해 줄 것이며 사람들의 그릇된 행실을 누가 고쳐주랴 하며 한탄하였다.

조정에서는 1831년(순조 31)에 효행이 뛰어남을 표창하기 위해 조봉대부동몽교관(朝奉大夫童蒙教官)을 추증하고 자손들이 두곡동 후록에 정문(효자문)을 세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7) 심주택(沈周澤) 선생 가연선행록

소장자: 심재성

구한말 일본의 침략행위가 노골화되고 국사(國事)는 이미 고종의 휘하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였다. 조선 5백년사의 운명은 현저하게 그 기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내각의 중신들 사이에서는 빨빠르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그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고종이 의친왕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은 대한(大韓)을 송두리째 일본에 내맡긴다는 신

호였다. 이때 의친왕에 이어 왕세자로 책봉된 영친왕은 오정 선생에게 배우고 있었다. 영친왕과는 5세 때부터 사제의 인연을 맺고 있었기에 두 분 사이의 정분은 남달리 돈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대의 조류는 왕가마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고종의 폐위와 함께 영친왕은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불모였다. 그리고 일본식 교육으로 무장시켜 버렸다. 소위 일본이 주장했던 내선일체(內鮮一體)는 바로 왕가부터 시작하는 수순을 은밀하게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궁내가 어수선한 어느 날 시강원(侍講院)에서 독서로 망중한을 보내고 있던 오정 선생에게 고종의 전교가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선생은 급히 어전으로 향했다. 풍채가 좋은 황제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우울하였다. 피곤에 지친 듯 수척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부복(俯伏)하고 있는 선생에게 고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언(無言)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 뜻도 된다. 가끔 시강원에 납시어 왕세자의 학문을 지켜보며 일일이 챙기는 등 자상한 부정을 아낌없이 쏟았던 분이다. 그 스승을 앞에 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선생은 이미 고종의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짐작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종은 육좌에서 살며시 일어나 선생에게로 다가서서는 선생의 두 손을 잡았다.

‘의친왕 척(拓)과 영친왕 은(垠)을 잘 부탁하오.’

떨리는 듯한 음성으로 고종은 나직이 속삭였다. 선생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총리대신과 궁내부대신서리 자리 를 한꺼번에 거머쥔 이완용으로부터 양위강요가 얼마 전에 있었음을 선생은 알고 있었다. 이미 고종의 결심이 마지막 단계까지 다다랐음을 짐작케 하는 예감이었다. 이것이 고종과 선생의 마지막 대면이 될 줄은 두 분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고종이 폐위되고 그 자리를 순종이 계승하였다. 그러나 황제라는 이름은 허울좋은 명분일 뿐, 실권은 모두 친일파 세력들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린지 오래 전이었다.

선생은 이때도 시강원에 몸을 담고 있었으나 친일내각은 왕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전통파 각료들을 그대로 두고 보진 않았다. 순종황제가 아닌 일본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교지가 내리자 선생을 비롯한 일부 대신들은 더 이상 조정에 머물러 있기엔 불가능해졌다. 영친왕도 이미 일본으로 떠날 채비를 차리고 있어 더 이상 시강원에서 선생이 해야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일본 이외에도 세계 열강들이 한성에 공관을 속속 개설함으로써 전혀 딴 세상의 문명은 사회 구석구석을 정신없이 파고 들어오고 있었다. 여과장치 하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관습과 제도, 게다가 신기한 공산품들, 이를 주저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중국 이외에 바깥 세계의 사정에 지극히 어두웠던 대부분의 대신들에게 기본적 사상의 바탕이 미처 마련되지 못했다. 아니, 주자학의 정통을 고집하고 삼강오륜의 대의를 국시로 삼고자 했던 선생의 국가관이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더욱이 섬기던 왕을 배반하고 일본에 동화하라는 주문에 가서는 차라리 선생에게 자진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선생은 고종과 순종이 머물고 있던 어전을 향해 배례하고 즉시 향리인 오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더 이상 머무를 수도, 머물러서도 안되는 대궐이었다.

1891년 등과하여 16년간의 관직생활을 선생은 주로 홍문관과 시강원에서 보냈다. 왕을 극진히 모시고 황태자를 성심껏 훈도한 결과가 이처럼 허무하게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선생은 멀어져 가는 광화문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나라를 가만히 앉아 송두리째 빼았겼다는 통분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떠어놓는 발걸음은 천근과도 같았다. 미거한 힘으로 대한제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 광화문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다짐은 그 광화문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짓기 위해 헐어낼 때 선생은 또 한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삼켜야만 했다.

이미 한성부는 경성부로 되어 경기도의 수부로 격하되는 수모가 뒤따른 상태여서 주권이 회복되고 한성으로 다시 부름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전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예감을 선생은 이미 하고 있었다. 관직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선생은 41세였다. 아직도 한참 의욕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령이었다.

그 후 1910년 대한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일제강점기로 전락해야 만했다. 경성권(京城圈)의 영향하에 놓여 있던 당시의 오산은 이미 일제의 문화로 오염되고 있었다. ‘하오리·하카마’를 두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일본인이 하나 둘씩 늘어났고 또 이들만 다닐 수 있는 소학교가 문을 열었다. 향리라고 해서 선생에게 할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나라를 잃은 민족이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국민이지만, 민족의 자긍과 뿌리마저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선생의 한 구석에서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가슴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의 맥을 가다듬어 이를 후대에 계승시켜야겠다는 다짐만 새롭게 새겨나갔다.

그래서 비록 신식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이지만 이에 맞선 우리 교육을 뿌리내려야 한다는 신념에서 당촌 본가의 사랑채에 서당을 개설하였다. 모이는 학동들이라야 당촌

을 위시해 역촌·우촌·부산 및 고현에 있는 아이들이 고작이었다. 자식에게 식민지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며 학교보내기를 끝까지 거부한 읍내 몇 사람이 5리 길이 족히 되는 이곳 당촌으로 아이를 보내고 있었다.

글자 하나 하나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학동들의 눈동자를 보고 있던 선생에게 관직을 떠난 미련이나 아쉬움은 별씨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 아이들만이라도 정성껏 길러내자. 언젠가는 내 대신 이 후진들이 빼앗긴 나라를 구하고 잊어버린 민족혼을 되살릴 동량들이다.’

선생의 목소리에 어느덧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대궐에서 가르치던 내용을 고스란히 당촌마을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 학동들의 우렁찬 글방 목소리를 서두로 원동마을 미명의 아침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선생의 휘는 주택(周澤)이고, 자는 경준(景尊)이며, 성은 심(沈)씨로 청송인이다. 오정(梧庭)은 바로 선생의 호가 된다. 고려 때 문림랑위위사승(文林郎偉僉尉寺承)인 휘홍부(洪孚)의 22대손이다. 2대 연(淵), 3대 용(龍)을 거쳐 4대 청성백 덕부(青城伯 德符)공에 이르러 가문이 크게 번성하였다.

청성백공은 성격이 너그러우면서도 무술이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의 용맹은 1377년부터 1382년에 이르는 6년간 서해도 부원수 겸 도순문사(西海道 副元帥 兼 都巡問使)로 있으면서 황해도와 충청도에 침공하는 왜구를 완전히 소탕하여 추성협찬 정난공신(推誠協贊 定難功臣) 칭호를 받았다.

또한 삼남지방 해안에 왜구가 선박 3백 척을 몰고와 대거 침범하자 삼남도원수에 임명되어 부원수 최무선과 함께 불과 40척의 전함에 화약을싣고 군산방면으로 출동하여 접근하는 왜군의 배를 모조리 섬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투에 화약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시초가 된다. 뿐만 아니라 문하부 찬성사(門下府 贊成事)로서 동북면 상원수(東北面上元帥)에 임명되어 이번에는 함경도 연해에 출몰하는 왜구를 소탕하였다. 역사가들은 이를 함주대첩(咸州大捷)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청성백공이 서경도원수로 있을 때는 우군도통사 이성계와 함께 요동정벌에 출정하였고 위화도 회군에 참여하여 송도로 돌아와서는 충근양절익찬 좌명공신(忠勤亮節翊贊 佐命功臣)의 칭호를 받은 동사에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翰三重大匡)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승진하였다. 그러나 포온선생이 이방원에 의해 피살되자 관직을 사임하고 이태조의 역성 혁명(易姓革命)에 결코 가담하지 않았다. 더욱이 위화도 회군의 공로로 공신록권(功臣錄券) 일등(一等)을 내렸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청성백공은 20여년 동안 국사를 돌보았으나 원래 청빈했던 관계로 비축한 재산이 하나

도 없어 타계한 후 겨우 상체를 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청빈사상은 아무래도 선생의 조부 지후공(祇候公) 연(淵)으로부터 전수받은 특성이 아닌가 싶다.

지후공은 각종 명리를 버리고 임천(林泉)에 뜻을 두어 부귀를 탐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시 한수를 지었다.

平生性癖小營爲 一任天公處分宜

薇蕨滿山寧學圃 藤葛續屋自成籬

風無約時時到 月不相期夜夜隨

外客休言塵世事 北窓高臥夢軒羲

평생 동안 내 성격은 살림살이 위하는 일 별로 없었네
 하늘의 처분이 마땅하리니 모두들 그에게 맡기고 따를 뿐일세
 고사리가 산속에 가득하니 식량 걱정할 것 없어 글만 읽을 것이요
 등나무와 흙넝쿨이 집을 둘러싸서 스스로 울타리를 이루었으니 도적 걱정도 없네
 훈풍은 일찍이 약속한 바 없어도 때때로 나를 찾아와 주고
 명월도 기약한 바 없건만 저녁마다 나를 따르네
 청컨대 외부의 손님네들이여 속세일을 나에게 말하지 마오
 북창쪽에 높다랗게 누워 있으면 현원씨와 복희씨가 꿈에 보이네
 글이나 읽으며 태평세월을 기다리리

안효공(安孝公) 온(溫)은 오정공의 17대조이며 청성백공의 7남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12세 때 진사에 합격하고 그 뒤 대사헌·이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이 되었고 세종의 국구로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에 봉해졌다.

안효공이 명나라 사신으로 출국하여 부재중 옥사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공의 아우 정(征)과 병조판서 및 참판 등을 사형에 처하고 공에게도 연루시켜 귀국 도중 압록강을 건너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수원으로 압송, 사약을 받았다.

형제가 역모로 옥사에 걸려 사형을 당하고 집안이 풍지박산된 것은 물론이었다. 그 후 33년만인 문종 원년에 가서야 비로소 신원되었다.

청송부원군(青松府院君) 희(澮)는 안효공의 둘째아들로 선고(先考)의 참화로 인해 어머니 순홍 안씨와 함께 적몰당한 채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유모가 강보에 싸 남쪽으로 도망, 방황하던 중 경북 선산군 선산면 와일동 예곡촌에 정착했다.

이곳에 거주하던 신천 강씨(信川 康氏) 거민(居敏)이 혈육이 없어 한탄하던 중 어느날 꿈속에 마을 앞 보리밭에 용이 서려 있어 일어나 밭에 나가 보니 어떤 부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지라 데리고 돌아와 지성껏 양육하였다.

문종 원년 문숙공의 나이 34세에 아버지 안효공이 신원되면서 돈녕주부에 임명되었고 50세에 영의정이 되었다.

그 후 강씨의 처가 죽었을 때 공은 영상직을 버리고 선산에 내려가서 그 마을 뒷산에 예장했을 뿐만 아니라 3년간 복상하였다. 묘 아래 큰 바위가 있는데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시묘를 했다 하여 지금까지 그 바위를 <삼정승바위>라고 일러 내려온다.

안효공의 형인 둔체공(遁帝公) 계년(繼年)의 장자인 애암공(愛菴公) 연(涓)은 다섯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웠는데 ‘효도는 마땅히 정성을 다함에 있고 충성은 신명을 나라에 바침에 있다’는 구절을 읽고는 ‘이 글을 지은 사람은 충효의 도리를 잘 알고 충효의 길을 행한 분일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사람이 충효의 길을 저버리면 금수와 같다고 생각한 애암공이 그로부터 부모님의 마음과 거처를 편안히 해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본 이웃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훗날 반드시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 하며 소위 보국동(輔國童)이라 칭찬하였다고 한다.

애암공이 16세 되던 해 4월 어느 날 부친인 지성주사공(知成州事公)이 병환을 얻어 수개월 동안 신음하고 있을 때 간병과 시탕에 전념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누워 있던 부친이 갑자기 때아닌 홍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가.

제철이 아니라 구해낼 도리가 없었던 애암공은 눈물을 머금고 뜰앞에 서 있는 감나무를 보고 한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감나무에서 움이 트고 있었다. 공은 감나무를 불들고 올먹이면서 ‘하늘이 우리 아버지를 살리시려거든 속히 감이 열리게 해주십시오’하고 종일 축원하였다.

공의 효심이 감천하였음인지 이튿날 아침 ‘홍시 사시요’ 하며 여자 장사꾼이 나타나 뛰어나가 보니 과연 홍시 10개가 광주리에 담겨 있어 얼른 후한 값을 주고 사서 부친께 드렸다.

홍시를 받아든 부친은 기뻐하면서 ‘내 병은 곧 궤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3일이 지나자 부친의 병은 셋은 듯이 나아 버렸다. 수찬공(修撰公) 달원(達源)은 오정공의 13대조가 된다. 수찬공에게는 영의정 연원(蓮源), 동돈영 봉원(逢源) 및 좌의정 통원(通源) 등 동복 4형제가 있었는데 다같이 대과 급제하여 세청 4원파(四源波)라 하며 이 중에서 정승이 9명이 배출되었다.

큰형인 연원의 손자 8명은 세청 8겸(八兼:仁·義·禮·智·信·忠·孝·悌)이라고 한다. 이

분은 천성이 매우 근엄했는데 아들 강(鋼·명종의 장인)을 소명하여 매일 문안을 올 때는 평교자를 타지 말고 보행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꼭 이행하도록 했다.

하루는 퇴궐시 무의식중에 교자를 타고 문안을 드리자 부친은 아들이 부명(父命)을 어겼다 하여 대들보에 임금의 장인인 아들을 매달아 치죄를 했다.

이에 중전 인순왕후가 직접 거동하여 조부 앞에 대신 사과해 겨우 방면받았다는 일화도 있다. 이때부터 청송 심씨 문중에서는 사람은 겸손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깊은 뜻에서 행렬자를 겸(兼)으로 하고 상자(上字)도 인·의·예·지·신·충·효·제로 명명했다. 이러한 정신은 문중의 가규(家規)로 이어져 왔고 또한 불문율로 계승되었다.

오정(梧庭) 선생은 고종 4년(1867) 4월 19일 청호면(현 오산시) 당촌에서 부 근암공(謹菴公) 의윤(宜允)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오정선생은 선천적으로 영특하고 특이한 자질로 인해 일찍이 주변에서는 선생의 대성을 점치기도 하였다.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일이라든지 세살 때부터 부친의 무릎 위에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한번 들은 내용은 결코 잊어 버리지 않는 총명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부친인 근암공은 일찍이 감역직(監役職)을 제수받았으나 취임하지 않고 후진양성에만 진력하고 있었다. 오정선생은 바로 부친이 차린 서당에서 본격적으로 한학을 공부하였다.

8세가 되어 통감을 해독하였고 10세에 시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13세 때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독파하는 실력을 배양하였다.

학문뿐만 아니라 천성도 온후하며 부모에 대한 도를 지성스럽게 하니 주변에서 칭찬이 그치지 않았다. 이는 바로 청빈과 효를 근본으로 하는 선대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瞻炙)되기도 하였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침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서야 마음을 놓는 성격이었다. 선생이 12세 때의 일이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길가 집에서 누군가가 가냘프게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괴이하게 생각하고 그 집 뜰 안으로 들어서니 그 집의 젊은 며느리가 치마 끝으로 눈을 가리며 슬퍼 울고 있었다. 그 연유를 알아보니 시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도 가세가 몹시 빈한하여 첨약 한 첨 제대로 달여드리지 못한 서러움에 복받쳐 있는 것이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람 본연의 자세라는 것을 고전에서 익히 배운터라 선생은 즉시 한의사를 불러 진맥케 하고 약을 짓게 하였다. 집에 돌아와 어른들께 사연의 전말을 자초지종 설명하고 약값과 진료비를 도와줄 것을 간청하였다. 기특히 여긴 부친이 이를 거절할 리 없었다.

고종 17년(1880) 14세에 야우(野愚) 서정순공(徐政淳公)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다. 야우공은 근암공과 함께 고산 임현희공(鼓山 任憲晦公)의 문인으로 양가가 내왕이 잦았고 집안 내력이나 사정도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고산공의 천거가 크게 작용하여 혼맥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정 선생이 24세 때에 숙인 서씨(淑人 徐氏)가 타계하는 불행을 당하였다. 자식도 생산하지 못하고 또 그때는 오정 선생이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생의 상배(喪配)는 가내에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

더욱이 부친과 조부는 두 분 다 관직을 사퇴하고 향리에 침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정 선생의 등용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기에 집안 대소가의 걱정스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익년(1891년) 4월에는 선생의 동생 우택공(雨澤公)의 배위 전주 이씨가 역시 젊은 나이로 타계하자 집안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오정 선생은 그해 음력 2월 8일 세자궁탄일에 있었던 과거시험에 응시하였다. 시험은 영의정이었던 심순택(沈舜澤) 공을 위시하여 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옥당 고시편전에서 있었다.

그 결과 선생은 과차 「三下二」로 「三下一」을 받은 서홍순공에 이어 두번째로 등과할 수 있었다. 이어 「三下三」에는 정윤, 초(草) 「三下」에는 정만우·심길구·채준식·김두홍·이종홍·정규림·손동석·임부준·김기홍·김유래 등 10명이 등과하였다.

고종 29년(1892) 5월에는 다시 통훈대부홍문관부교리지제교 겸 경연시강관춘추관편수관(通訓大夫弘文館副教理知製敎 兼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에 임명되었으며 그해 3월에는 통훈대부병조좌랑(通訓大夫兵曹佐郎)이 되었다.

이후 선생은 광무 11년(1907) 4월 6일 시강원 시독관서주임관3등자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선생은 시강원에서 시독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영친왕을 교설(敎說)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광무 11년은 나라 안팎으로 커다란 변혁의 해였다. 3월 나인영의사의 을사오적 암살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5월에는 박제순 내각이 퇴각하면서 이완용이 총리대신으로 들어오는 등 국운은 이미 소진될대로 소진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25세에 입궐하여 40세에 탈관할 때까지 15년간의 궁중생활은 선생의 총명과 근검성에 비춰 너무나 젊은 세월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선생은 이를 탓하지 않고 낙향이 아닌 귀향을 결심했던 것이다.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곧으며 기상이 엄하고 사람을 절대함에 조금도 소홀함

이 없었다. 아랫사람을 부릴 때도 외면수식을 일삼지 않았으며 관직에서 돌아온 후에도 봉친(奉親) 함에 정효(精孝)를 다하였다.

선생의 가정훈육은 유별나게 엄격하였다. 또한 형제지간의 우애 또한 지극하여 궁한 살림에도 늘 동생과 친지를 생각하는 마음뿐이었다. 따라서 여분의 식량이 있으면 우선 동생과 이웃으로 반을 보내고 나머지를 갖고 호구를 하되 그도 부족하여 동생식구를 집으로 불러 함께 식사하도록 하였다.

선생께서 부녀자 훈육을 위해 손수 집필한 『선행록』은 지금도 가문과 자손에게 가정교육의 근본이 되고 있다. 향리에서 학동들을 가르치면서도 선생은 시강원에서 어린 영친왕과 강독을 교환하던 추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해아릴 수 없었다. 아침전심이었던지 일본에 가 있던 영친왕이 어쩌다 잠시 귀국하게 되면 영친왕을 태운 기차는 으레 오산역에서 정차하고 선생을 찾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조그마한 면소재지에 황실전용열차가 정차하였으니 온 면내가 소동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역의 승강장에서 두 분이 말을 잊은 채 손만 꼭 쥐다가 눈물로서 하고 싶은 말들을 대신 하는 안타까운 모습만 남기고 기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고 한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그러나 여기서 더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지닌 채 선생은 1945년 1월 23일 광복의 기쁨도 채 맛보지 못하고 며느리·손자·증손(가언선행록 소장자 : 심재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생을 마무리하였다.

8) 청해백사당(青海伯祠堂)

소재지 : 오산시 가수동 85

시대 : 1896년(고종 33)

수량 : 1동

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우진각지붕

청해백사당은 대지 39평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지붕에 붉은 벽돌로 벽체를 이룬 사당건물이다. 사당내부는 마루를 깔았고 3량 가구에 골기와를 얹은 목조건물로 붉은 기둥에 녹색 단청을 한 석가래로 건축되었다. 상량문은 조선 말기인 1896년(고종 33)에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사당 내부에는 총 5점의 치제문이 보관돼 있는데 1790



청해백진영



청해백사당

년(정조 14), 1795년(정조 19), 1804년(순조 4), 1810년(순조 10), 1812년(순조 12)에 각각 지방관을 보내 치제한 제문이다. 청해백사당은 조선왕조 건국에 개국 1등 공신으로 훈록된 이지란 선생의 사당이다. 이지란 선생은 1331년(고려 충혜왕 1)에 태어나 1402년(조선 태종 2)에 졸한 고려·조선의 공신이다.

본성은 통(佟), 본명은 쿠룬투란 티무르, 본관은 청해(青海)다. 본래 여진인 아라부화(阿羅不花)의 아들로 아버지의 직위를 세습해 천호가 된 후 고려 공민왕 때 부하를 이끌고 귀화, 북청에 거주하면서 이(李)씨의 성과 청해를 본관으로 하사받았다.

그 후 이성계(李成桂)의 휘하에서 1392년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워 개국 공신(開國功臣) 1등에 책록되고 청해군(青海君)에 봉해졌다.

1393년(태조 2) 경상도절제사로 왜구방어를 담당했고 동북면도안무사(東北面都安撫使)가 되어 북방요인 갑주(甲州)와 공주(孔州) 두 성을 축조했다. 그후 조선왕조 건국 초창기 두 차례의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1400년(정종 2) 좌명공신(佐命功臣) 2등이 되었으며 좌찬성에 이르러 태조가 은퇴하자 영홍(永興)에서 그를 시종했다. 고려말 조선 초기 아래 남정북벌(南征北伐)에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속죄하고자 중이 되었다. 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 시호는 양렬(襄烈)이다.

9) 윤훤(尹萱)선생 묘

소재지: 오산시 세교동

시대: 1504년(연산군 10)

규모: 1백여 평의 묘역, 묘갈·상석·각1기, 문인석 2기 배치

1백여 평의 묘역으로 조선초의 전형적인 묘제로 되었다. 묘갈 1기, 상석·향로석·흔유석 각 1기, 문인석 2기가 있고 묘전은 장대석으로 치장되었다. 묘 하단에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는데 방형의 기단석 위에 거북 바탕의 비좌가 있고 이수와 비신이 1매석으로 되어 있다. 이 묘역은 묘갈과 신도비, 문인석 등 조선 초기 묘제와 묘역 석물의 조형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윤훤 선생은 해평 윤씨(海平 尹氏)의 후손으로 1444년(세종 26)에 태어나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의 관직을 지낸 후 1504년(연산군 10)에 출한 문신이다. 사후에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묘역에는 사예(司藝) 김말문(金末文)이 음기(陰記)하고 좌의정 성세창(成世昌)이 찬·병·서·전(撰·并·書·篆) 한 묘갈과 신도비가 있다.

10) 방어사(防禦使) 변응성(邊應星) 선정비

소재지: 오산시 지곶동

시대: 조선 중기

규모: 높이 1백35cm, 폭 61cm, 두께 22cm

이 선정비는 독산성에서 오산 방향으로 가는 국도변 독산성 동남향 산록 오산시 지곶동에 있다. 당초에는 독산성 밖 서쪽 현재의 주차장입구 근처에 있었던 것을 독산성 보수공사 때 주민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변응성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원주, 아버지는 공조판서 겸 도총관을 지낸 협(協)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주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전 왜군에 의해 경주가 함락되자 1593년 유성룡의 천거로 경기방어사가 되었다. 이천부사(利川府使)로 있을 때 여주목사 원호(元豪)와 협력하여 남한강에서 적을 무찔렀다. 1594년 임진란 중 광주·이천·양주의 산간에 출몰하는 토적을 무찔렀으며 한강상류 용진(龍津—지금의 양수리 부근)에 승군을 동원해 목책을 설치, 병졸을 훈련하였다. 1602년(선조 35) 임진왜란이 끝난 후 독산성을 석성으로 수축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출한 후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양혜(襄惠)다.

11) 안치문(安致文) 교지

소재지: 오산시 양산동 389(소장자: 안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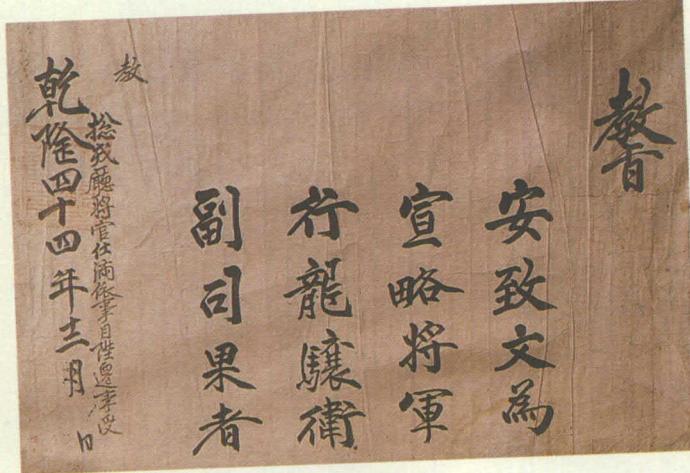
수량: 3점

규격: ①75×53cm ②75×53cm ③64×53cm

시대: ①1779년(정조 3) ②1795년(정조 19) ③1824년(순조 24)

재료: 저지(楮紙)

내용:



이 교지는 정조 3년 (1779) 3월에 국왕이 안 치문(安致文)에게 발급한 문서로서 선략장군 용양위부사과자임을 증명하는 교지다.

① 「安致文爲 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果者 乾隆四十四年三月」 이 교지는 정조 19년 (1795)에 국왕이 안치문에게 발급

한 문서로 통정대부임을 증명한 교지다.

② 「安致文爲 通政大夫者 乾隆六十年月日」 이 교지는 순조 24년 (1824) 1월에 국왕이 안 치문에게 발급한 문서로 가선대부임을 증명한 교지다.

③ 「安致文爲 嘉善大夫者 道光四年正月」

12) 김정구(金鼎九) 교지



소장자: 오산시 갈곶동(김성태)

규격: 62×82cm

시대: 1752년 (영조 28)

재료: 저지(楮紙)

내용:

이 교지는 영조 28년 (1752) 9월 28일에 김정구(金鼎九)에게 발급한 문서로 김정구가 무과丙과 제1백70인 (1백70등)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지다.

「閑良金鼎九武科丙科第一百七十人及第出身者
乾隆十七年九月二十八日」

13) 김중성(金重聲) 교지

소장자: 오산시 갈곶동(김성태)

규격: 62×8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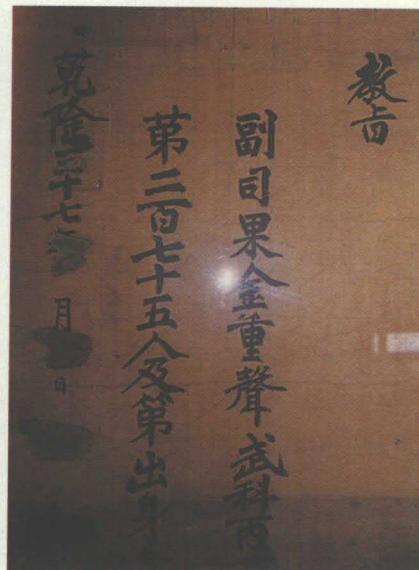
시대: 1772년(영조 48)

재료: 저지(楮紙)

내용:

이 교지는 영조 48년(1772)에 국왕이 김중성(金重聲)에게 발급한 문서로 당시 부사과 김중성이 무과병과 제2백75인(2백75등)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지다.

「副司果金重聲武科丙科第二百七十五人及第出身者 乾隆三十七年月日」



김중성 교지

14) 김종식(金宗植) 칙명

소장자: 오산시 갈곶동(김성태)

규격: 52×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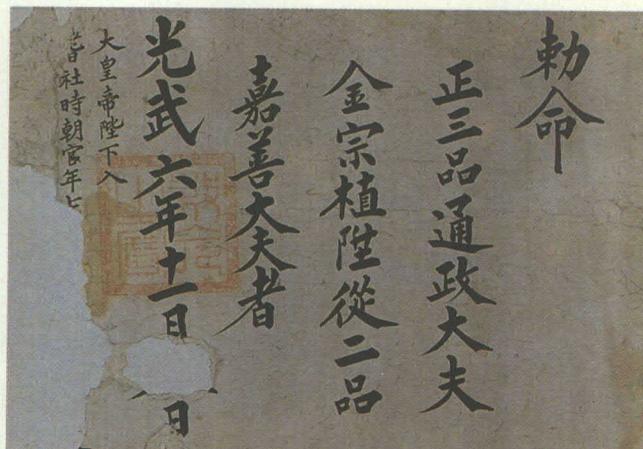
시대: 1902년(고종6)

재료: 저지(楮紙)

내용:

이 교지는 대한제국 고종6년 11월 8일에 황제가 김종식(金宗植)에게 발급한 문서로 김종식이 정3품 통정대부로 승품하였음을 증명하는 칙명이다.

「金宗植陞正三品通政大夫者 光武六年十一月八日」



김종식 칙명

15) 독성 려왕릉(禿城 麗王陵)

소재지 : 오산시 지곶동(독산성 남문 밑)

시대 : 고려

오산시 지곶동 독산성 남문 밑에는 세청 려왕릉(麗王陵)으로 불리는 고려시대 왕릉이 있다. 1899년(광무 3)에 간행된 수원군읍지에 의하면 “독성 려왕릉(禿城麗王陵)은 남으로 30리 독성산에 있다. 경진년(1760·영조 36) 장현세자(사도세자)께서 온천에 거동할 때 산성을 지나시다가 진남루에 오르시어 본부 중군(中軍) 이두환(李斗煥)에게 ‘여기에 무슨 고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누 아래 긴 기슭에 하나의 큰 무덤이 있으니 예부터 고려 왕릉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세자께서 살펴보시고 영을 내려 이르시기를 ‘천백년(千百年) 세상이 바뀐 다음에는 왕릉(王陵)의 묘가 이같이 되기 쉬운 것이다. 산하(山下)의 많은 무덤들을 파헤치지 말고 엄하게 신칙하여 소와 말을 방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원군읍지의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다.

〈禿城麗王陵 : 在府南三十里禿城山城庚辰 莊獻世子溫幸時歷臨 山城御嶺南樓 教本府中軍李斗煥曰此中有何古蹟乎斗煥代曰 樓下長麓有一大塚自古稱麗王陵云矣 移 蹤審覽 仍 下令曰 千百年草世後陵墓之如此易矣山下衆塚 雖不可掘第加嚴飭無得放牧可也〉

16) 오산시 출토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규격 : 높이 19.3cm, 안면높이 4.3cm

수량 : 1점

시대 : 고려

보관처 : 국립중앙박물관

발견자 : 최창남

발견일 : 1965년 6월 7일

발견장소 : 오산시 지곶동 산219

광배와 대좌를 잊고 전신에 청녹이 슬었으나 군데군데 살갗 같은 도금이 남아 있다. 신체는 원통형으로 모델링되었고 옷자락과 의습은 주물 뒤 각도로 마무리하여 각명하다. 보관은 당초문이 투각된 화관으로 머리 뒤에서 리본형으로 결대되고 일단 높게 부조한 관대는 배면 허리선까지 수하하였다. 세 갈래로 단정히 묶은 보계는 머리 뒤로 틀었다. 팽창된 타원형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단정하며 수발은 귀를 덮어 내려 어깨 위에서 두 갈래

로 갈라져 상완에 드리워져 있다.

신체에는 전혀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고 통견으로 여래상의 법의를 걸쳤는데 옷자락은 좌권에서 벗겨내려 오른쪽 옷깃 사이로 여며 넣었다. 넓은 면으로 구성된 의습의 각법은 예리하며, 특히 왼쪽 허리에서 벗겨내려와 반전된 율동적인 의단은 견고한 상의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상의 내부는 공동이며 오른손은 여원인을, 왼손은 시무외인을 맺었는데, 장지와 무명지를 구부린 형상이다.

통형의 배면에도 의습이 부조되었으며 허리 중앙과 하체에 곱게 삽입한 광배또다리가 달려 있다. 원통형의 신체 모델링, 투각문의 판상 보관, 면적인 의습 표현, 고른 주물 등 고려 후기의 단아한 작품을 반영하고 있다.



금동보살입상

· 오산시의 보호수(保護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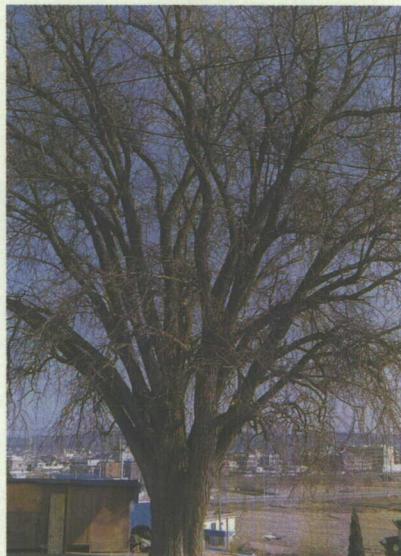
1972년 내무부에서 간행한 *보호수지*(保護樹誌)에 의하면 거수목(巨樹木)은 나라의 보물로서 술한 세월 갖은 풍상을 이겨내고 끗끗이 서 있는 민족의 기상이라고 했다. 내 고장 마을마다 늘름하게 버티고 있는 거수목은 우리의 할아버지·할머니가 묻히고 또 우리가 살다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내 고장의 상징이며 뻗어가는 내일에의 힘찬 겨레의 유산이라고 했다.

보호수의 지정대상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천연기념물 이외의 나무로서 수령 1백년 이상의 노거수이거나 고사(故事)와 전설이 담긴 진귀수목, 조류가 서식하는 수목 또는 수립이거나 고사와 전설이 담긴 진귀하고 희귀한 나무로서 풍치 경관이 뛰어난 수립이라고 했다.

보호수는 품격별로 마을나무, 읍·면나무, 시·군나무, 도나무로 구분하였으며 전국 일련 번호와 품격별로 시·도단위 번호가 부여되었다. 시·도나무는 1등급으로 수령 5백년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진귀하고 희귀한 것으로 시·도의 상징적인 수목이며 시·군나무는 2등급으로 수령 3백년 이상, 읍·면나무는 3등급으로 수령 2백년 이상, 마을

나무는 4등급으로 수령 1백년 이상의 진귀·희귀수목이다. 오산시에 소재한 세 그루의 보호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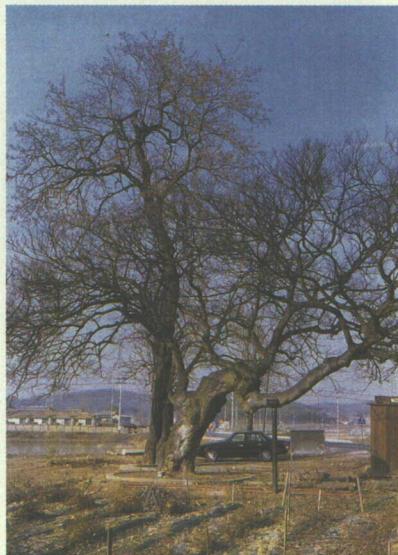
• 도 나무



궐리사 은행나무

- 소재지 : 오산시 궐동 217
- 수 종 : 은행나무
- 수령 : 4백20년
- 높이 : 30m
- 둘레 : 5.5m
- 면적 : 1백50㎡
- 소유자 : 공씨 종중
- 전국 일련번호 : 60호
- 지역 일련번호 : 34호
- 전설 : 문현공이 직접 식재한 나무며 한때 죽었다가 조선 정조 16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함.

• 시 나무



팽나무(벌음동)

- 소재지 : 오산시 벌음동 184-1
- 수종 : 팽나무
- 수령 : 4백26년
- 높이 : 11m
- 둘레 : 2.5m²
- 면적 : 80m²
- 소유자 : 마을공동
- 전국 일련번호 : 139호
- 지역 일련번호 : 1호

• 시 나무

- 소재지 : 오산시 세교동 517
- 수종 : 느티나무

- 수 령 : 3백6년
- 높 이 : 18m
- 둘 레 : 4m
- 면 적 : 2백83㎡
- 소유자 : 마을공동
- 전국 일련번호 : 176호
- 지역 일련번호 : 1호

• 마을 나무

- 소재지 : 오산시 서랑동
- 수 종 : 은행나무
- 수 령 : 1백21년
- 높 이 : 30m
- 둘 레 : 35m
- 면 적 : 1백㎡
- 소유자 : 차정환(車正煥)
- 전국 일련번호 : 183호
- 지역 일련번호 : 1호

17) 윤훤(尹萱) 묘갈(墓碣)

소 재 지 : 오산시 세교동

찬자(撰字) : 김말문

건립 연대 : 1505년(연산군 11)

규 모 : 비 신 - 97.5×56×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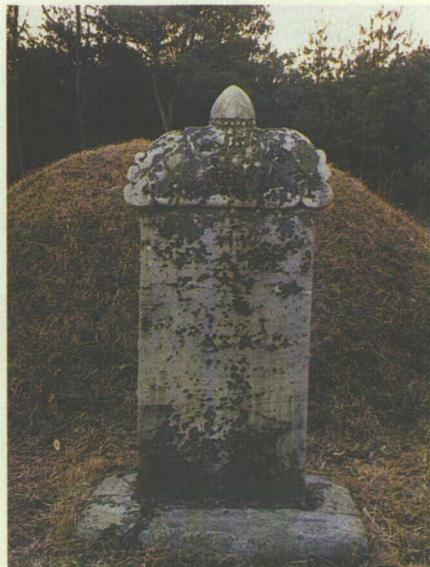
가첨석 - 38×66×24.5cm

기단석 - 10×93×56cm

(원문) - 尹萱墓碣

(전면) - 朝奉大夫軍器寺僉正尹萱之墓

(후면)



윤훤 묘갈

- 1 尹氏□□□海平□公諱萱字伯英孝□兼□才器兩大以□□□
- 2 任累迁至朝奉大夫軍器寺僉正年六十一以病矣世仁皆以□才
- 3 □能□之曾大父諱思修嘉靖大夫參知議政府事寶文閣提學
- 4 大父諱處誠通政大夫水原都護府使父諱汎通訓大夫承文院參
- 5 校外大父李公諱孝禮資憲大夫知中樞院事□□朝奉大夫洪川
- 6 縣監金君諱模之女生三男二女長曰殷輔中甲寅科□弘文館典翰
- 7 次曰殷弼擢甲子科□□□弘文館修撰次曰殷佐亦有才名女長適
- 8 參奉任明弼次選入後□□□□于皆幼銘曰海平□奇鐘秀生贊
- 9 忠孝□家□□□□海平□□其□□□尹氏□福與之俱長
- 10 □ 成均司藝金末文誌
- 11 弘治 十八年九月初四日立

(번역문)

윤훤묘갈

윤씨(尹氏) -3자결-해평(海平) -1자결-공(公)의 휘(諱)는 훤(萱)이고 자(字)는 백영(伯英)이다. 효우(孝友)와 재기(才器)가 크고 행실이 이름이 있었다. 관직에 임명되어서는 누차 지위가 올라 조봉대부 군기시 첨정(朝奉大夫 軍器寺 僉正)에 이르렀고 61세 때 병으로 죽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재주와 능력을 -2자결-증대부(曾大父)의 휘는 사수(思修)로 가정대부 참지의정부사 보문각제학(嘉靖大夫 參知議政府事 寶文閣提學)을 지내셨고, 조부(祖父)의 휘는 처성(處誠)으로 통정대부 수원도호부사(通政大夫 水原都護府使)를 역임하였다. 아버지는 면(汎)으로 통훈대부 승문원 참교(通訓大夫 承文院 參校)

를 지냈다.

외대부(外大父)의 휘는 이효례(李孝禮)로서 자현대부 지중추원사(資憲大夫 知中樞院事)를 지냈다. -2자결- 조봉대부(朝奉大夫) 홍천현감(洪川縣監) 김모(金模)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2녀를 낳았다. 장남은 은보(殷輔)로 갑인년(甲寅年) 과거(科擧)에 합격하여 홍문관 전한(弘文館 典翰)이



윤훤묘

며, 차남은 은필(殷弼)로 갑자년(甲子年) 과거에 뽑혀 -3자결-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있다. 삼남은 은좌(殷佐)로 역시 재주로 명성이 있다. 장녀는 참봉(參奉) 임명필(任明弼)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5자결- 선발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명(銘) 하노니 (이하는 결자가 많아 판독이 어렵다)

홍치(弘治) 18년(1505) 9월 4일에 세움.

18) 윤훤(尹萱) 신도비(神道碑)

소재지: 오산시 세교동

찬(撰)·서(書): 성세창(成世昌)

건립연대: 1543년 (중종 38)

규모: 비신-142×64.5×19cm

이수-42×74×25cm

귀부-73×97×170cm

(원문)-尹萱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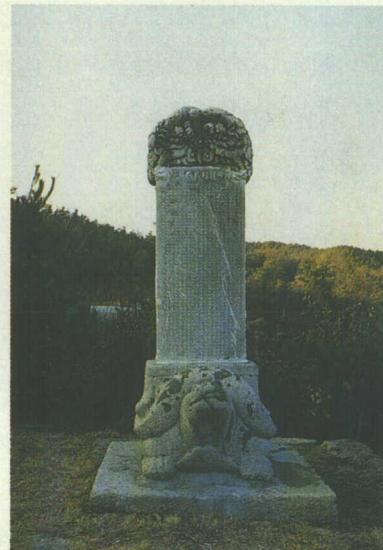
(전면)-贈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

師行朝奉大夫軍器寺僉正尹公神道墓碑

(후면)

- 1 有明朝鮮國 贈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行朝奉大夫軍器寺僉正尹公神道碑銘並序
- 2 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副賓客 成世昌撰並書
- 3 公諱萱字伯英系出海平縣在麗代通經史登顯列者代不絕有諱思修入 本朝 官至參知議政府事寔爲曾祖生諱處誠爲通政大夫水
- 4 水原都護府使 贈兵曹判書生諱汎擢第選補集賢殿著作終承文院參校 贈議政府左贊成公娶知中樞府事李孝禮之女成化
- 12 王子德陽 後娶郡守宋堦之女無嗣參判娶僉正蔡子涓之女生三男一女長曰弘彥造紙署別坐次曰貞彥爲進士次曰亨彥四山監役
- 13 女歸侍講院設書趙光玉直長娶司紙金仲文之女生五女皆嫁爲士人妻參奉生三



윤훤 신도비

- 男二女長曰尹承文院博士次曰說三接嵬科今爲
- 14 軍器寺僉正次曰呂力學能文二女皆爲士人妻歲在癸卯五月我議政公年尊位極
追慕之誠益切深恐先德湮沒不傳屬世昌追籍其實
- 15 迹用鐫于石以圖不朽世昌自以才拙辭不獲謹以家乘歷敍世系子孫之富爲文以
誌之因銘曰
- 16 惟彼海平同獄降神世有哲人福祿維新經羅涉麗或晦或明入于 聖朝再振簪纓
祖考兩世攷強鬱沉冥有幹罔施德以謙鳴蕃慶擁休
- 17 積久而盈配淑媛賢爲國榦槩有積而發如種必生追錫祖先孝由忠行突兀螭頭邱
兆是榮於萬斯年永壽厥聲
- 嘉靖二十二年八月 日立

(번역문)

윤훤신도비

유명조선국 증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
감사 세자사 행조봉대부 군기시 첨정 윤공 신도비명 병서 (有明朝鮮國 贈大夫輔國 崇錄大
夫 議政府 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行朝奉大夫 軍器寺
僉正 尹公 神道碑銘 立序)



윤훤 신도비

자현대부 예조판서 겸지경연 홍문관 대제학 예
문관 대제학 지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좌부빈객 성
세창(資憲大夫 禮曹判書 兼知經筵 弘文館 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知春秋館 成均館事 世子左副賓客
成世昌)은 글을 짓고 아울러 쓴다.

공(公)의 휘(諱)는 훈(萱)이요 자(字)는 백영
(伯英)이니 해평현(海平縣) 출신이다. 고려조(高
麗朝)에 경사(經史)에 능통하여 등용함에 현열
(顯列)에 오른 자가 대(代)마다 끊이지 않다가
휘(諱) 사수(思修)란 분이 계셨으니 본조(本朝)
에서 관직(官職)이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에 이르렀으니 공의 증조부(曾祖父)가 되는 분이
다. 휘 처성(處誠)을 낳았으니 통정대부 수원도
호부사(通政大夫 水原都護府使)가 되어 병조판서

(兵曹判書)에 증직(贈職) 되었고, 휘 면(沔)을 넣으니 급제(及第) 하여 집현전 저작(集賢殿 著作)으로 선보(選補) 되었다가 승문원 참교(承文院 參校)로 마쳤는데 의정부 좌찬성(議政府 左贊成)에 증직되었다.

찬성공(贊成公, 沔)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효례(李孝禮)의 딸에게 장가들어 성화(成化) 갑자년(甲子年·1444·正統 9년)에 공을 놓았다. 공은 효우(孝友)가 하늘에 닿았고 학문에 힘써 경사(經史)에 밝았으나 여러번 과거(科舉)에 낙방하자 조정(朝廷)에서 그의 재주를 애석히 여겨 천거(薦舉)로 익위사 사어(翊衛司 司禦)를 제수(除授) 하였다. 그 후 도총부 도사(都摠府 都事)로 옮겨지고 다시 조봉대부 사섬시 첨정(朝奉大夫 司膳寺 前正)으로 승진되었다. 관직에 나아가서는 화폐의 출납(出納)을 상세히 살펴 조그마한 착오도 없었다. 다시 군기시 첨정(軍器寺 前正)으로 전임(轉任)되어 정덕(正德) 갑자년(150·弘治 17년)에 병을 얻어 정침(正寢)에서 죽으니 61세였다. 후에 의정부 영의정(議政府 領議政)에 증직(贈職) 되었다.

부인은 김씨(金氏)로 현감(縣監)을 지낸 휘 모(模)의 딸로서 현숙한 덕행이 있어 구족(九族)을 성심으로 대하고 자제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도(方道)가 있었다. 공보다 앞서 홍치(弘治) 무신년(戊申年·1488)에 수(壽)를 다하여 양주(楊州)의 계토산(癸土山) 계좌정향(癸坐丁向)의 언덕에서 장사지냈다.

공이 죽었을 때에는 마침 연산군(燕山君)의 학정(虐政)이 있던 때로서 양광도(楊廣道)가 유렵장(遊獵場)이 되어 선영에 장사지내지 못하고 수원부(水原府) 경계에 예를 갖춰 장사지냈다.

공은 평생에 단종(端重)하고 소박하여 말과 웃음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니 바라보면 숙연하고도 따뜻하였다. 조상을 모심에는 성심으로 제사지내고 사람을 공경으로 대하였으며 선(善)은 성색(聲色)을 즐기듯 행하고 의(義)가 아닌 것은 도적을 피하듯 하였다. 일찍이 현배(賢配)를 잃어 아이들만 방안에 기득하고 가난했지만 태연하여 슬퍼하는 모습이 없었다. 후에 두 아들이 귀하게 되어 가도(家道)가 점차 좋아졌지만 더욱 삼가고 조심하여 다행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그 천성이 그러하였다. 공은 숨은 덕과 높은 행실이 많았으며 글재주와 관리로서의 자질이 있었지만 끝내 크게 현달하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애석해 하였다. 이제 와서 위인을 낳게 되어 나라의 주석(柱石)이 되고 있으니 하늘의 보답함이 가볍지 않도다.

3남 2녀를 낳았으니 큰아들은 은보(殷輔)로 지금 의정부 영의정이 되어 3세(世)가 추증(追贈) 된 것은 공의 관질(官秩)에 의한 것이다. 둘째아들은 은필(殷弼)로 이조참판(吏曹參判)이다. 셋째아들은 은좌(殷佐)로 사섬시 직장(司膳寺 直長)이다. 큰딸은 참봉(參

奉) 임명필(任明弼)에게 시집갔고, 둘째딸은 연산군의 후궁(後宮)으로 뽑혀 숙의(淑儀)가 되었다.

의정공(議政公, 殷輔)은 처음에는 군직(軍職)인 이원정(李源楨)의 딸과 혼인하여 딸하나를 두어 승지(承旨) 권찬(權贊)에게 출가시켰고, 찬(贊)의 일녀는 왕자(王子) 덕양군(德陽君)에게 출가하였다. 후취(後娶)는 군수(郡守) 송거(宋琚)의 딸로서 후사(後嗣)가 없다.

참판공(參判公, 殷弼)은 첨정 채자연(蔡子涓)의 딸에게 장가들여 3남 1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홍언(弘彦)으로 조지서 별좌(造紙署 別坐)이며 차남은 정언(貞彦)으로 진사(進士)이고, 세째아들은 형언(亨彦)으로 사산감역(四山監役)이다. 딸은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인 조광옥(趙光玉)에게 출가하였다.

직장공(直長公, 殷佐)은 사지(司紙) 김중문(金仲文)의 딸과 혼인하여 5녀를 낳아 모두 출가하여 사인(士人)의 아내가 되었다.

참봉(參奉, 任明弼)은 3남 2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윤(尹)으로 승문원(承文院)의 박사(博士)이고 차남은 설(說)이니 세 번이나 장원(壯元)을 하여 지금은 군기사(軍器寺 剉正)이 되었고 삼남은 여(呂)로서 학문에 힘써 글에 능하다. 이녀는 모두 사인(士人)의 처(妻)가 되었다.

계묘년(癸卯年) 5월에 우리 의정공(議政公)이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게 올라 추모(追慕)하는 성심(誠心)이 더욱 간절하여 선덕(先德)이 인몰(湮沒)되어 전해지지 못할까 두려워한 끝에 세창(世昌)에게 그 실적을 추록(追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장차 들에 새겨 불후(不朽)를 도모하겠다고 하였다. 세창은 스스로 재주가 없음을 말하고 사양하였으나 응낙을 얻지 못하고 삼가 가승(家乘)을 살펴 세계(世系)와 자손의 번성함을 살펴서 글을 만들어 기록하고 이어서 명(銘) 하노니

저기 해평인(海平人)이여 동악(同嶽)에서 신(神)이 내려온 듯
대대로 철인(哲人)이 나오니 복록(福祿)도 새로워라
신라(新羅)를 지나 고려(高麗)를 거칠 때 어둡다가 밝아지니
성조(聖朝)에 들어와 벼슬길 다시 트였도다
조(祖)와 부(父) 양세(兩世)에는 침울하게 묻혀
재주를 드러내지 못하고 겸손의 덕으로 올렸어라
경(慶)을 쌓고 휴(休)를 안아 쌓인 것이 오래되고도 찬도다
현숙한 배필(配匹)과 어진 자식이 나라의 동량(棟樑)이 되었도다

쌓은 것이 발하게 됨은 심은 것이 썩트는 것과 같도다.

선조(先祖)를 추증(追贈) 시킨 것은 충(忠)으로 효(孝)를 한 것이다

우뚝 솟은 이두(螭頭)는 산소에 영광이라

만년이 지난 뒤에도 그 명성(名聲)을 누리옵소서

가정(嘉靖) 22년(1543) 8월 세움

19) 한두유(韓斗愈) 묘갈(墓碣)

소재지: 오산시 부산동

찬(撰)·서(書): 송시열·김진규

건립연대: 1712년(숙종 38)

규모: 비 신-145×66×28.3cm

가첨석-50×110×76.5cm

기단석-39×111.5×69cm

(원문) -韓斗愈 墓碣

(전면) 有明朝鮮豐德府使

韓公斗愈仲明之墓

淑人全義李氏祔左

(후면)

한두유 묘갈



1 仁敬王后外祖考曰郡守 贈參議韓公諱有良有子諱斗愈字仲明□□□□□□

□□□□□□□□□□□□□□而竟

2 不第中間陞上舍遊太學薦授齋郎陞敍爲奉事 仁敬王后□□□□□□□□

□□□□□□□□□□□□以懿

3 親備事于禮事禮成以 恩特陞宗簿寺主簿歷戶曹佐郎爲□□□□□□□□

□□□□□□□□□□□死者里

4 之棄者收而响之仁聲四馳流通坌集又資以田作俾得有秋俱不憂死聽斷公明□

□□□□□□之公益自淬礪絕

5 去奉功海倉監稅官頗有贏利公辭而不免至則平其槩量輸者大悅又以其餘充本

縣田稅縣民咸集縣庭鼓舞頌德

6 縣俗有病專靠巫覡公教醫藥又設局以濟之自是死者十減八九官屬之隨官出入

- 者病於羸糧公設敷給本典以謹
- 7 慎吏使之取息爲資以爲永遠計於卒伍所病亦如之令甲所謂七事蓋無不修舉而
於學校尤致意焉凡其設施皆可
- 8 爲法方伯書考曰瓜已熟矣民欲臥轍民則書於去思碑曰六年爲政萬世不忘又頌
儒化如蜀民之思父翁焉陞拜金
- 9 川郡守郡當西關孔道策應煩夥公益著精神凡所措畫不爲目前計一如鎮安時事
績方興而公則病矣 朝廷陞利
- 10 川豐德兩所而以金民之借寇皆不得赴焉公事親惟以順適爲悅雖在布衣甘毳畢
具□□□遑寢食遐方奇藥人所
- 11 未見聞者竭力致之迎醫藥神皆盡誠心後買田以營宅乖償其價百倍曰先人托體
□□□□人或歎於心乎周卽窮
- 12 族如恐不及亦推之於婦黨其有冤枉計度伸理曰爲人謀忠當如是也與人樂易無
□□□□□渭甚督今 上乙卯
- 13 士禍大作卽絕當世念解綏歸田野老爭席不 阡陌之遊而閒居獨處慨然有蔑貞
□□□□物以群分而已也末年
- 14 雖不得已乍應□□而非公素志也公清州人遠祖蘭策麗祖開國勳仍世大顯入我
朝尤盛高祖諱輻文科壯元承
- 15 旨曾祖諱□□□□□僉正祖諱慶生水運判官妣德水李氏參判景憲之女公生于
崇禎壬申其卒己未二月二十
- 16 一日而墓□□□□□川已向之原配全義李氏 宣廟朝名臣領議政鐸之後其祖
曰承旨省身其考曰執義杭男長
- 17 永敍次永徽□□□□□女婿申洗趙正夏也公所抱負不淺勸鑿試於郡縣而止惜
哉余遊公父子間又因光城公熟
- 18 知公內行之美進士故來請銘云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領 經筵事致
仕奉朝賀宋時烈述甥嘉善大夫
- 19 禮曹參判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 經筵義禁府春秋
館事 世子左副賓客金鎮圭書
- 20 大字淑人表姪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
世子右副賓客李健命書陰記
- 21 黃等川以宅乖不利癸未八月十一日移葬水原釜山里負丑之原先妣生于壬申
六月十一日歲戊子于歸辛巳十

- 22 一月十一日終於不肖任所全州府衙壬午二月二日別葬黃等川後移祔同穴先妣
天質寬惠舉度閒靜寡言慎行
- 23 又自謙遜孝父母友兄弟識慮亦有人所不及處永徵擢第嘗爲持平生一女適兪宇
基金川之民於府君□□載後
- 24 樹碑追思之其遺愛之久而彌深可知已茲皆宋先生記述後事不宜闕漏謹錄于左
辛卯初秋男□□□□□□
- 25 崇禎甲申後六十九年壬辰 立

(번역문) – 한두유묘갈 (韓斗愈墓碣)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외고조(外高祖)는 군수(郡守)를 지내고 참의(參議)로 증직(贈職)된 한유량(韓有良)이다. 아들은 두유(斗愈)로 자(字)는 중명(仲明)이다.

-17자결 – 끝내 과거(科舉)에는 급제(及第)하지 못하였다. 중간에 상사(上舍)로 올라 태학(太學, 成均館)에서 학문에 열중하다가 천거(薦舉)되어 재랑(齋郎)에 제수(除授)되었다가 다시 승진하여 봉사(奉事)로 서용(敍用)되었다.

인경왕후(仁敬王后) – 20자결 – 친족간에 예의로 대하여 화목하였고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도 예를 다하였다.

왕의 은전(恩典)을 받아 종부시 주부(宗簿寺 主簿)로 승진하고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역임하였다가 –19자결 – 되었다.

동리의 길에 사람이 죽어 버려진 것을 거두고서 기뻐하였다. 이러한 어진 마음이 사방에 전달되자 유망자들이 모여들었다. 또 농사를 짓는 비용을 위하여 빌린 돈을 가을에 거두어 들이면 죽을 걱정이 없겠다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 결단하고는 공이 –7자결 – 밝혔다. 공은 더욱 죄상을 끊어 버리기에 힘쳤다. 해창(海倉)의 감세관(監稅官)이 자못 이익을 주려고 하면 공이 사양하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대강의 수량을 균등히 하여 돌려보내고 크게 기뻐하였다. 또 그 나머지는 본현(本縣)의 전세(田稅)에 보충하니 현민(縣民)들이 현(縣)의 정원에 모여들어 복을 치고 춤추며 그 덕을 칭송하였다.

현(縣)의 풍속에 병이 있으면 오로지 무당과 박수에게 의지하였는데 공의 의술(醫術)과 시약(施藥)을 가르치고 또 해민국(惠民局)을 설치하여 현민(縣民)을 구제하니 이로부터 죽는 자가 10명 중 8~9명이 감소하니 관속(官屬)들이 따르고 관청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았다. 가득한 곡식이 부패하자 공이 미곡창고를 설치하여 본전(本典)을 지급하는데 삼가 신중히 하였다. 아전(衙前)으로 하여금 이자(利子)를 거두어 들여 자본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계책이 역시 이와 같았다. 법령에 있는 이른바 칠사

(七事 : 守令 七事의 준말)로 수령이 반드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을 일컫는 말이다. 즉 농상성(農商盛)·호구증(戶口增)·학교흥(學校興)·군정수(軍政修)·부역균(賦役均)·사송간(詞訟簡)·간활식(姦猾息)이다)를 닦고 빛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학교에서 더욱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무릇 설치하고 시행한 것이 모두 법에 맞게 하였다.

방백(方伯)의 서안(書案)을 살피니 이미 교체될 임기가 됨에 백성들이 공의 흔적을 찾아 거사비(去思碑)에 글을 지었는데 6년 동안 정사(政事) 한 것을 만세(萬歲) 토록 잊지 말자는 내용과 또 공이 백성들을 유학(儒學)으로 교육시킨 공(功)을 칭송하는 것이 촉(蜀) 나라 백성이 복옹(父翁)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았다.

승진하여 김천군수(金川郡守)에 배수되었다. 군(郡)은 서쪽 관문의 큰 길이므로 번다 한 사무가 많아 공(公)의 정신을 더욱 빛나게 하였는데 무릇 조처할 것이 눈앞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으나 하나 같이 백성을 편안토록 하였으므로 일의 공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으나 공이 곧 질병을 앓게 되니 조정(朝廷)에서 이천(利川)과 풍덕(豐德)의 부사로 승진시켰으나 부호(富豪)들의 침구로 모두 부임하지 않은 곳이었다.

공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순리에 맞게 하여 기쁘게 해 드렸다. 비록 포의(布衣)이나 맛있고 연한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3자결— 한가로이 주무시게 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듣지 못한 귀한 약을 먼 지방에서 구해 드시도록 하였다.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기울여 의사를 부르고 신께 기도 드리기를 두루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후에 밭을 팔아 집을 지었는데 집이 무너지자 그 가격의 백배를 보상 받으니 사람들이 앞서 몸을 의탁하고 -4자결— 혹은 마음에 불만족하였다. 가난한 족속에게 두루 진휼하면서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역시 처가집의 본종(本宗)에게도 이와 같았다.

억울한 죄가 있으면 법도에 맞도록 그 뜻을 신원(伸冤) 시켰으니 사람들에게 진실을 도모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더불어 사람에게 즐겁게 -5자결— 심히 명석하였다.

숙종(肅宗) 을묘년(乙卯年·1675)에 사화(土禍)가 크게 일어나자 즉시 현실과 인연을 끊고자 벼슬을 버리고 초야로 돌아갔다. 노론(老論)의 자리 다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농사를 지으면서 한가로이 홀로 지냈는데 개연히 절개를 무시하고 -4자결—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분이었다. 말년에 부득이하게 잠시 -2자결—에 옹하였는데 공의 평소 마음은 아니었다.

공은 청주인(淸州人)이며 시조(始祖)는 난(蘭)으로 고려조(高麗朝)에 개국공신(開國功臣)에 책훈(策勳)되어 마침내 세상에 크게 현달하게 되었고 조선(朝鮮)에 들어와서는 더욱 번성하였다. 고조(高祖)는 복(輶)으로 문과(文科)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여 승지를 지냈으며, 증조는 -4자결—로 첨정(僉正)을 지냈다. 조부(祖父)는 경생(慶生)으로

수운판관(水運判官)을 지내고 어머니는 덕수 이씨(德水 李氏)로 참판(參判) 경현(景憲)의 딸이다.

공은 승정(崇禎) 임신년(壬申年·1632)에 태어나 기미년(己未年·1679) 2월 21일에 죽으니 묘소는 -5자결- 천(川) 사향(巳向)의 언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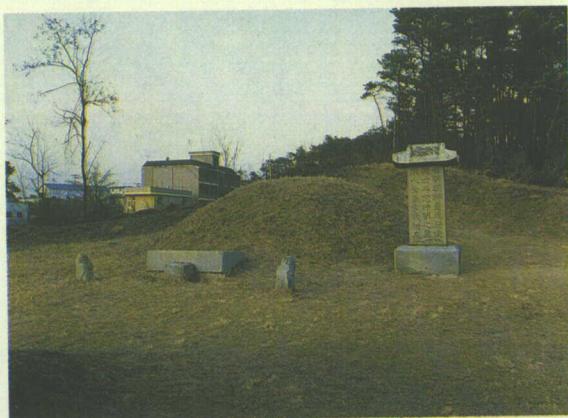
부인은 전의 이씨(全義 李氏)로 선조(宣祖) 때의 명신(名臣)인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탁(鐸)의 후손으로 조부(祖父)는 승지(承旨)를 지낸 성신(省身)이며 아버지는 집의(執義)를 지낸 항(杭)이다.

장남은 영서(永叙), 차남은 영휘(永徽)이고 -4자결- 두 딸은 신광(申光)과 조정하(趙正夏)에게 출가(出嫁)하였다.

공의 포부가 얇지 않다는 것은 잠깐 군현(郡縣)에서 증험(證驗) 하였으나 아깝게 거기에서 그치고 말았다. 내가 공의 부자간(父子間)과 교유(交遊) 하였고 또 광성공(光城公)으로 인하여 공의 사행(私行)의 아름다움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진사공(進士公)이 비명(碑銘) 짓기를 와서 청한 까닭에 대광보국 승록대부 영중추부사 겸영경연사이며 봉조하로 치사(大臣輔國 崇祿大夫 領中樞府事 兼領經筵事 奉朝賀 致仕) 한 송시열(宋時烈)이 글을 짓고 생질(甥姪) 가선대부 예조참판 수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사 세자좌부빈객(嘉善大夫 禮曹參判 守弘文館 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知成均館事 同知經筵 義禁府 春秋館事 世子左副賓客) 김진규(金鎮圭)가 글을 쓰고 큰 글씨인 숙인(淑人)의 묘표(墓表) 조카인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동지의금부 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세자우빈객(嘉善大夫 吏曹參判 兼同知義禁府 春秋館事 五衛都摠府 副摠管 世子右副賓客) 이건명(李健命)이 쓰고 음기(陰記)하였다.

황등천(黃等川)의 집이 무너져 이롭지 못하다 하여 계미년(癸未年) 8월 11일에 수원(水原) 부산리(釜山里) 북동쪽을 등진 언덕으로 이장(移葬) 하였고 선비(先妣)는 임신년(壬申年·1632) 6월 11일에 태어나 무자년(戊子年·1648)에 공과 혼인하여 신사년(辛巳年·1701) 11월 11일에 불초한 내가 전주부(全州府) 아문(衙門)에 있을 때 수(壽)를 다 하였는데, 임오년(壬午年) 2월 2일에 황등천에 별도로 장례를 하였다가 뒤에 동혈(同穴)에 합장하였다.



한두유 묘

선비(先妣)는 천성(天性)에 관후(寬厚)하고 법도(法度)에 밝았으며 한가하고 고요하게 보냈는데 말씀이 명료(明瞭)하고 행동이 근신하였으며 또 스스로 겸손하였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는 우애로우며 식견과 사려가 역시 깊어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영휘(永徽)는 과거에 급제하여 일찍이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땔 하나를 낳아 유우기(渝宇基)에게 출가하였다.

김천(金川)의 사람들이 부군(府君)의 공적을 기재한 후에 비를 세워 추모하였다. 그 남긴 사랑이 오래 가고 더욱 깊이 알리고자 송선생(宋先生: 宋時烈)이 기술하고 뒤에 잘 못된 것이나 빠뜨려진 사실들을 삼가 좌측에 기록하는 것이다.

신묘년(辛卯年) 초가을 아들 —6자결—

승정(崇禎) 갑신년(甲申年) 후(後) 69년이 지난 임진년(壬辰年·1712) 세움

〈강 대 육〉

《참고문헌》

- 『文化財大觀』(경기도편), 경기도, 1989.
-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82.
-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禿山城 調査報告書』, 새한건설문화연구소, 1982.
- 『烏山의 뿌리를 찾아서』, 오산문화원, 1996.
- 李正無, 『龍珠寺 本末寺誌』, 1984.
- 『佛教辭典』, 동국역경원, 1984.
- 『京畿道史』(第1卷), 京畿道, 1979.
- 『都元帥權慄』, 權慄將軍史蹟研究所, 1982.
- 『文化遺蹟總覽』(京畿道編), 文化公報部, 1977.
- 『南漢誌』, 廣州郡, 1989.
- 『韓國人名大辭典』, 新丘文化社, 1976.
- 『動產文化財指定調查報告書』, 文化財管理국, 1990.
- 『海平尹氏族譜』
- 『保護樹誌』內務部, 1972

